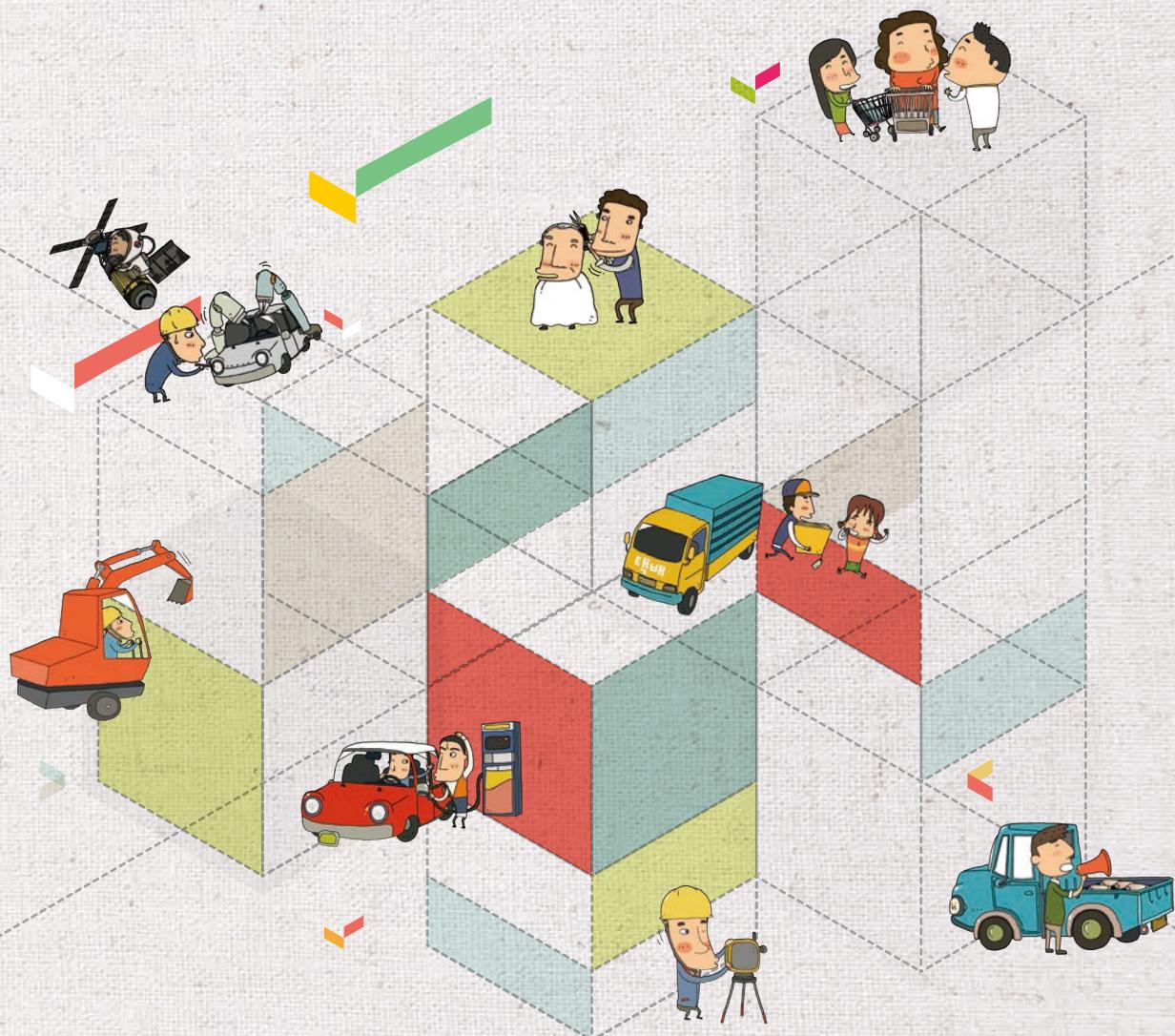


고등학교



사회적경제

워크북



01 책의 활용과 구성

사회적경제 워크북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감과 태도 역량을 기르게 하기 위한 활동 자료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조적이고 기발한 생각과 도전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많은 체인지메이커들이 기초 소양을 다질 수 있도록 워크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17차시를 기준으로 활동지를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각 활동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습 목표 : 차시별 활동의 성취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의 등장 배경 알기

학습목표

- ①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 ③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1

❖ Mission : 차시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한 생각을 여는 자료를 읽거나 동영상 등을 시청하며, 활동 내용에 대한 미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다했다...

Mission

① 170년 전, 28명의 로치데일 선구자들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바꾸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었나? 각자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눠보자.

❖ 학습 내용 :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습 내용을 익히고, 이를 토대로 학습 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시장경제의 의미

시장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유경쟁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제이다. 시장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란 분야에 의해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적절하게 배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하여 최대한의 만족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성장우선 원칙으로서의 자본

●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로, 경제학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계획경제인 사회주의 경제'와 대비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 학습 활동 : 학습 내용을 토대로 학습 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해 봅니다. 개별 활동과 모둠 활동 등을 통해 협업과 배려를 배우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시에 제시된 미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다양한 공동체 사례 조사 공유 프로젝트

학습활동

*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창출한 이윤과 혜택이 지역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 창출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며,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연결하여 지역 사회의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사업에 시민사회 조직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

관심있는 주제의 국내외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하자.

참조 자료

- ❖ 은평구 e풀앗이(돈이 없어도 필요한 것을 교환할 수 있는 재능 풀앗이와 지역화폐)
- ❖ 음식공유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출발! [하 출처 : 책 '마을을 상상하는 207지 방법'] – 수온길방(음식어울려 먹기), 이웃랄랄라(이동하는 마을)
- ❖ 사람을 모으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힘 – 은실이네(파로 또 같이 살기), 동네공간(공동 주거와 마을공동체 고민)
- ❖ 협력과 협동의 현장 마을 – 우리마을카페오공과 우리동네사람들(청년의 협동으로 일군 느낌의 공동체) – 성대곶 에너지마을(협동으로 일구는 마을 리얼버라이어티),
- ❖ 마을에서 말한다 – 마을을 담는 마을신문(도봉N), 성북마을방송 외보송,
- ❖ 마을에서 예술하기(마을의 일상에 펴지는 문화예술향기) – 예찬길 마을공동체(어쩌마 마주친 끌록길에서 예술 접하기)

또한, 사회적경제 워크북의 각 단원은 2개의 단원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1단원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되기 위한 기초 활동으로서 사회적경제의 등장 배경,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관계를 이해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찾아서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기 안에 감춰진 체인지메이커의 역량을 발견하고 확장하며,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2단원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조직의 유형을 이해하고 체험해 봅니다.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 유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정무역, 공동체에 대해 직·간접적인 활동들을 체험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부록 공감 익히기 추가 활동을 통해 융합과 창조의 공감 능력을 키우며, 창조적 기업가정신 설계하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끌어내어 키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ONTENTS

고등학교 사회적경제 워크북

1단원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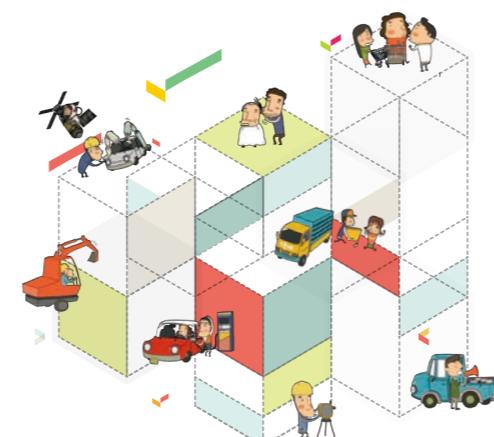
① 사회적경제의 등장 배경 알기	6
②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의 문제해결	12
③ 체인지메이커의 이해	16
④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사례	21
⑤ 사회적경제와 공감	27

2단원 사회적경제의 모습 살펴보기

⑥ 사회적기업의 이해	38
⑦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사례	42
⑧ 협동조합의 이해	46
⑨ 협동조합으로 배우는 사회적경제	50
⑩ 학교협동조합의 이해	56
⑪ 학교협동조합으로 배우는 사회적경제	61
⑫ 마을기업의 이해	66
⑬ 마을기업의 유형과 사례	71
⑭ 자활기업의 이해	76
⑮ 공정무역의 이해	82
⑯ 공정무역의 사례와 실천	88
⑰ 공유경제의 이해와 사례	92

부록 공감 익히기 추가 활동 창조적 기업가정신 설계하기

① 공감을 통한 융합과 창조	98
② 하트 브랜딩	107



학습내용

- ① 사회적경제의 등장 배경 알기
- ②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의 문제해결
- ③ 체인지메이커의 이해
- ④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사례
- ⑤ 사회적경제와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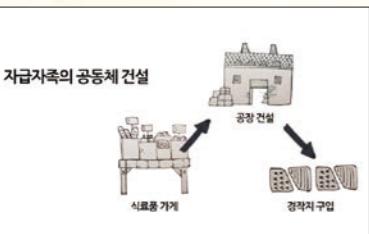
1

사회적경제의 등장 배경 알기

학습목표

- ①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 ③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170년 전, 28명 노동자의 '로치데일의 꿈'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었나?



1840년대 영국은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힘든 시기였다. 일자리도 거의 없었고, 굶는 사람도 많았으며 평균 수명도 매우 낮았다.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하루 17시간의 노동에도 상인자본가에게 빚을 지거나 질이 낮은 음식을 고가에 사야 했다. 1844년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로치데일 직물공장의 28명 노동자는 해결책을 찾아 나섰고, 그들은 스스로가 좋은 먹거리를 판매하는 가게를 열기로 했다. 그들은 각자 1주일에 2펜스씩 1파운드의 출자금을 모아 1주일에 세 차례 밤에만 개장하는 점포를 열었다. 처음에는 밀가루, 버터, 곡물가루, 설탕과 양초 등 다섯 가지 물품을 취급할 정도로 열악한 출발이었다. 하지만 이 초라한 점포가 전 세계 12억 인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조직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뿌리가 되리라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로치데일이 좋은 물건을 정직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점점 조합원과 상점이 증가했고, 조합의 수익금은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것 외에도 당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과 학교를 세우는 등의 교육과 조합원의 복지에 투자되었다. 로치데일 조합원 사이에는 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 서로 도우며 서로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다했다...

동영상 | 로치데일의 꿈



Mission

- ① 170년 전, 28명의 로치데일 선구자들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바꾸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었나? 각자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눠보자.
- ② 17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유엔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1 시장경제의 의미

시장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유경쟁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제이다. 시장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란 분업에 의해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적절하게 배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하여 최대한의 만족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성장우선 원칙으로서의 자본축적과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부의부 빈의빈'이라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경제적 불황과 실업, 인간이 돈과 상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인간 소외(비인간화) 문제와 지나친 사적이익 추구로 인한 공익 침해나 환경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개입하여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통해 시장경제와 공공경제가 혼합된 형태의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2 사회적경제의 의미

사회적경제는 이윤추구를 중심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과 정부의 경제활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social)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 구성원이 삶의 다양한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를 자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면서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고 지역과 경제의 주체가 되는 경제로서, 국가가 자원을 강제로 배분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사회주의경제나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경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회적경제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자발적 참여이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외 계층, 실업, 빈곤, 주거, 의료,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해결한다.

둘째, 호혜적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두고 구성원들 서로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통제이다. 사회적경제의 경영은 1주 1표가 아닌 1인 1표의 투표권에 의해 통제된다.

넷째, 잉여수익 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한다. 사회적경제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활동의 발전을 위해 적립한 후에 참여자의 가치 창출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로 경제학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계획경제인 사회주의 경제'와 대비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공공경제

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은 시장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혼합된 조직이다. 시장경제 안에서 다른 기업 조직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장적 요소와 조합원들이 이윤추구가 아닌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훈련을 한다는 사회적 요소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생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들로 협동조합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경쟁과 협력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관찰되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으로 개체의 생존을 위해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종을 보존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인간 본성의 상반된 속성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단체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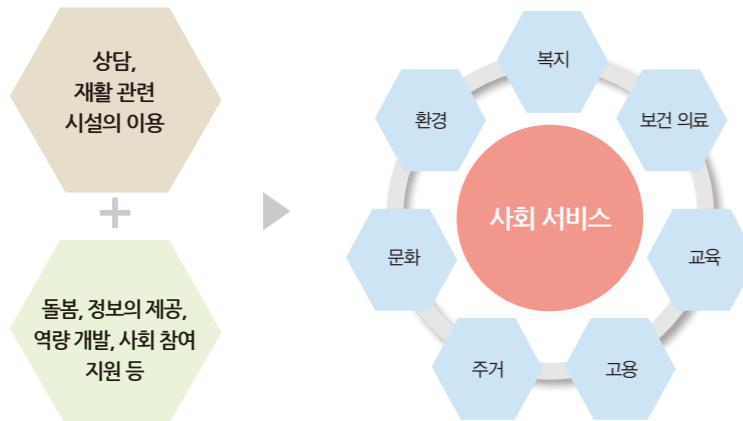
3 사회적경제의 발달 과정

① 산업혁명 초기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불평등한 분배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연대를 통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출현하였다. 1844년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시초이며, 노동자와 장인들의 상호부조적인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② 1970년대

1970년대 석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규모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늘어나는 실업 빈곤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나 빈곤, 실업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으로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그동안 국가가 제공하던 교육, 아동, 보건, 의료, 환경, 안전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서비스가 축소되고,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화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 서비스는 국가와 시민이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③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금융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우 수익을 조합 내부에 쌓아 두어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고 경제 위기에 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위기 극복 능력을 보이면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게 되었다.

1

학습활동

더 나은 세상을 개척한 사회적경제 이해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난 개념으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의 충격이후 새롭게 탄생한 개념으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았다.

(출처:한경 경제용어사전)

사회 서비스

-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공공 행정(일반 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 운영)를 포함하는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 등 복지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주로 공공지원형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 후견 기관이 중심이되었지만,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조직이 되었다. 이후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나타났으며,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최근에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래 사례를 읽고 UN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한 이유 생각해보자!

〈몬드라곤그룹의 10대 운영원칙〉

조합원 자격 개방/인표/노동자에게 최고결정권/자본은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보조 도구/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임금의 균등화/조합간 협동/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사회 민주화와 정의 평화 등 보편적 가치 확산/교육기회제공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도 해고없는 세계 최대 몬드라곤 노동자협동조합

작은 트럭에서 시작하여 스위스인 1/20이 주인인 협동조합 미그로

Murri 주택협동조합이 공급한 저렴하고 안전한 친환경 아파트

① 노동자 협동조합 : '몬드라곤' 협동조합(스페인 바스크지역), 사회적경제의 상징

- ❖ **발전과정 :** 석유난로 생산직원 협동조합인 '울고'에서 출발, 1956년 기업체 형태 시작
 - 제조업을 시작으로 은행, 경영 컨설팅, 교육, 사회보장 시스템, 유통 등으로 정부지원 없이 스스로 성장
 - 257개 기업과 조합, 7만4000여명 조합원이 일하는 연합체(세계 최대), 2014년 연매출 약 14조8000억원
- ❖ **특징 :** 자금력 부족한 직원협동조합에 지금 지원하는 '노동인민금고' 운영, 외부자금 없이 그룹 내에서 투자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연구소 '이켈란'과 교육기관인 '몬드라곤 대학' 설립, 운영

② 소비자 협동조합 : 개인소유 기업이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조합으로 전환된 '미그로' 협동조합

- ❖ **발전과정 :** 스위스의 산악지형으로 시장 접근이 어려운 가정을 상대로 생필품을 트럭으로 판매하던 미그로 창업자 고트리브 두트바일러가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자보다 40% 값싸게 판매하여 성공, 1941년 주식을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스위스 국민에게 기부, 소비자가 주인인 협동조합 탄생
- ❖ **특징 :** 스위스 인구 700만 중 200만 조합원, 직원 8만여 명의 스위스 최대 소비자협동조합.
 -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목적으로 10 스위스프랑을 낸 지역조합원(소비자)들이 주인.
 - 이익을 많이 남기기보다 좀 느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결정, 이산화탄소 라벨을 붙여 기후보호에 도움되는 물품구입 유도, 자동차 사용감축 위해 매장위치 선정기준으로 겉거나 자전거 이용이 편한 장소를 정하는 등 '가장 신뢰받는 회사'상 3회 수상. 은행, 주유소, 여행, 레저 등 조합원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

③ 금융 협동조합 : 세계 최초의 금융신용협동조합 독일의 '라이파이겐'은행

- ❖ **발전과정 :** 상업자본가들의 고리채로 인한 경제적 수탈과 대기근(1847년)으로 기아에 허덕이던 농민들을 위해 독일 농촌지역의 촌장이던 라이파이겐이 인맥을 동원해 마을기금을 조성하여 굶주린 주민들에게 곡식을 외상으로 제공, 1849년 프라멘스펠트 빙농구제조합을 설립해 농민들이 가축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60명이 무한연대책임으로 자본가의 돈을 빌려 가축을 사고, 5년 동안 나누어 갚는 제도 도입
 - 1862년 라이파이겐 은행으로 성장. 도시지역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1850년 설립된 시민은행과 합병.

④ 사회적/아색 협동조합 :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주택건설시행 협동조합 'Murr'

- ❖ **발전과정 :** 1963년 설립,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집을 만들어 자연스레 집값 안정에 기여
 - 총 1만 2천호 주택 건설, 조합원 2만 3천명, 볼로냐 주택 공급의 20%.
- ❖ **특징 :** 우리집은 우리 손으로! -볼로냐 도시 외곽의 55평 고급빌라가격 2010년 1억 5천(친환경에너지인증)
 - 시공도 건축회사들이 만든 협동조합에, 볼로냐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들이 새로운 건축기술 개발에 참여
 - 저렴한 땅 개발, 설계 등 건축 전반 자체 인력으로, 이윤 남아도 다음 조합원들의 주택건설을 위해 적립
 - 협동조합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도시 볼로냐 실업률 3%(이탈리아 평균의 1/4), 1인당 GDP 4만달러(이탈리아 평균 2배), 400개의 협동조합, 볼로냐 시민의 2/3 이상이 협동조합 가입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차이 비교하기

각 수행 팀에서 제시한 핵심어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를 비교해 보자.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비교 활동을 통해 느낀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해 토의해 보자.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조직 유형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조직 유형에 해당되는 다양한 사례(A~H)를 조사해보자.

조직 유형	특성	사례
사회적 기업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활동을 결합한 기업 및 조직	
청년소셜벤처	창의와 혁신적 방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진취적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소유와 1인 1표의 민주적 원리로 운영되는 기업	
마을공동체 기업	지역사회의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운영되는 마을단위 기업	
공정무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빈곤문제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거래와 공급체계를 갖춘 무역	

● 우리 주변의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조직 유형 사례를 통한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A 000간	창신동에서 지역기반의 디자인제품 생산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동대문 의류상가에 제품을 납품하는 작은 봉제공장 1,000여개가 모여 있는 창신동 봉제마을이 국내 의류산업불황으로 기업들이 생산공장을 동남아 등으로 옮기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활력을 잃은 마을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여유있게 살도록 돋는 사업 만들기
B 공신닷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기업 일반 학생들에게 공부법 관련 인터넷강의와 참고서 등의 일부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는 무료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 : 지난한 환자에게 무료수술을 해주면서도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하는 인도의 '아라빈 안과병원'벤치마킹
C 바이맘	비싼 난방비 때문에 겨울이면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난방비를 절약하면서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외풍을 막고 따듯한 공기를 잡아주는 실내용 텐트 제작 및 판매
D 위즈돔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플랫폼에 자신이 나눌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소개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만남을 신청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도서관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셜벤처. : 투자의 귀재 웨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식사가 엄청난 금액의 경매에 부쳐져 그 수익금이 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벤치마킹

E 베어베터	자폐나 발달 장애를 안고 있는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일터,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인쇄, 제과·제빵, 커피 제조, 꽃배달 서비스를 제공
F 지구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서울 시민청에 있는 착한소비, 윤리적 소비라고 불리는 커피원두와 초콜릿, 지구 반대 편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하고 들여온 수공 예품을 파는 공정무역 가게
G 성미산 밥상	친환경유기농식품으로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을 주민들의 욕구와 요리를 좋아하는 마을 주민의 꿈이 만나 탄생된 협동조합형 마을 식당
H 우리마을 사회적경제 사례조사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의 문제해결



학습목표

- 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례를 통해 공동체 관련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 이해하기
- ② 국내외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사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③ 친구들과 함께 우리 마을에 필요한 작은 공동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도에는 없는 20년 마을공동체, 관계의 산물 '성미산마을'

- 이웃사촌이 와글와글, 마을이 놀이터!
- 마을에는 갈 곳이 많다, 아이들을 놀게 하려다 어른도 놀다.



동영상 | tbsTV 특별기획 3부작 마을보고서 [1부- 당신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Mission

- ① 내가 거주하는 마을과 우리 나라, 그리고 세계에는 어떤 공동체(운동)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사례 조사 해보자.
- ② 우리 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동체 사업 목록을 친구들과 협의하여 작성해보자.

*참조 :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http://15445077.net>)에서 다양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와 협동조합 운영 사례 검색

1 아파트에 편 또다른 공동체 꽃 - 파000맘

출처 |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산티), 내일신문 2014-10-23

6800여 대단지 아파트 숲 사이로 아이들 웃음소리와 이웃 간에 반가운 인사말이 끊이지 않는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은 바로 엄마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파000맘(이하 팍맘)' 온라인 커뮤니티다.

함께 하는 기쁨, 함께 나누는 기쁨, 기부와 소통을 함께하는 파000맘

이 카페 운영자인 000씨(만38세)는 2008년 입주하기 이전부터 이웃이 될 엄마들과 미리 알고 지내고 싶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열었다. 현재 1800 여명이 등록 회원들이 온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아기 피별, 동별, 엄마 나 이별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과 영어스터디, 퀼트, 운동, 재테크와 같은 동호회 활동과 다양한 기부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아파트의 모든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안다.

오후 하교시간이면 뻥뱅이 놀이터, 무재기 놀이터 등 놀이터마다 마중 나온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 준비해온 간식을 나눠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팍맘엔 전업맘, 워킹맘의 경계도 없이 단지 '팍맘'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디서든 내 아이처럼 쟁겨준다. 팍맘 열혈멤버인 김00씨(만28세)는 "스물다섯 어린나이에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낳아 친구들은 한창 예쁘게 꾸미고 사회생활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와 씨름하다 보니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팍맘에 가입하고부터는 또래 엄마들과 돌아가며 이유식 품앗이도 하고 함께 어울리다 보니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할 수 있었어요. 팍맘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라며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팍맘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는 박00씨(만 34세)는 "우리 아파트에만 있는 택배서비스가 있어요. 일명 '엘리베이터 택배'라고(웃음). 반찬, 과일 뭐든 나눠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엘리베이터에 실고 받을 친구 층수를 누름과 동시에 전화합니다. 지금 올라가! 그리고 한밤에 아이가 아파 다급한 사인을 보내면 여기저기서 약도 갖다 주고 선배맘들이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등 친자매 이상으로 쟁겨줍니다." 엄마끼리 친하다보니 아이, 남편까지도 친구가 되어 여행도 함께하는 등 한 가족처럼 지내는 집들도 많다고 한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차가운 도시에서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따뜻한 풍경이다.

다양한 재능 기부와 꿈과 열정 함께 펼치는 팍맘들

팍맘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주부들이 전공과 취미를 살린 클래스를 열어 엄마들에게 재능을 기부한다. 함께 배우러 다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창업을 하기도 하고 전시회도 여는 등 마음에 품고 있던 꿈들을 하나씩 펼치고 있다. 재능기부 뿐만 아니라 기부활동, 아파트 협동과 환경보호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등 분야는 달라도 자신의 삶에 열정을 쏟고 있다. 엄마의 마음을 전하는 기부활동, 1년 2회에 나눔 벼룩시장을 열어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8번째 우물을 짓어준다. 있다. 벌써 7호 우물이 탄생했고...

공동체의 뜻

일반적으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이나 결속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공동체의 구성요소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소속감, 영향력, 욕구 충족, 사건의 공유와 정서적 연결 등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공동체의 종류

공동체는 폐쇄적 공동체와 개방적 공동체로 나눌 수 있다. 폐쇄적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혈연이나 지역에 기초하고, 개방적 공동체는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이해를 토대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도 폐쇄적 공동체와 개방적 공동체의 형태가 공존하기도 하며, 온·오프라인 복합의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특정 연예인이나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SNS와 오프라인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관심사로 모이는 공동체나 이슈 중심의 공동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복합되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기

도시 속 이 아파트의 파000맘 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공동체 사례 조사 공유 프로젝트

- *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창출한 이윤과 혜택이 지역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 창출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며,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연결하여 지역 사회의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사업에 시민사회 조직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

관심있는 주제의 국내외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하자.

참조 자료

- ❖ 은평구 e품앗이(돈이 없어도 필요한 것을 교환할 수 있는 재능 품앗이와 지역화폐)
- ❖ 음식공유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출발(이하 출처 : 책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 수운집방(음식어울려 먹기), 이웃랄랄라이(동하는 마을)
- ❖ 사람을 모으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힘 – 은실이네(따로 또 같이 살기), 동네공간(공동 주거와 마을공동체 고민)
- ❖ 협력과 협동의 현장 마을 – 우리마을카페오공과 우리동네사람들(청년의 협동으로 일군 느낌의 공동체)
 - 성대골 에너지마을(협동으로 일구는 마을 리얼버라이어티),
- ❖ 마을에서 말한다 – 마을을 담는 마을신문<도봉N>, 성북마을방송 와보송.
- ❖ 마을에서 예술하기(마을의 일상에 퍼지는 문화예술향기)
 - 예찬길 마을공동체(어쩌마 마주친 골목길에서 예술 접하기)
 - 000간, 청신동 봉제마을(마을에서 펼쳐지는 일상의 소소한 예술)
- ❖ 마을에서 교육한다(마을이 학교다) – 삼각산재미난마을(재미있어서 학교이고 마을이라네)
 - 공릉동 꿈마을공동체(교육격차, 꿈격차를 없애는 마을)
- ❖ 마을에서 일한다(마을에서 하는 경제활동) – 아빠맘두부(마을에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하여)
 - 마을무지개(결혼 이후 여성들이 함께 꾸리는 마을 기업)
- ❖ 농촌의 미래 : 6차 산업화,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유튜브 영상)

해외 사례

- ❖ 영국 해크니 마을기업, 일본의 우가와 마을 등

마을공동체 심화 탐구를 위한 추가 자료

- ❖ 책 '마을공화국의 꿈 흥동마을 이야기' (새로운 교육, 농업, 정치를 일구다)
- ❖ 마을공동체 필요성, 효과, 문제점 되짚어 보고 해결방안 모색하기 영상 – tbsTV 특별기획 3부작 마을보고서 [2부- 도시마을의 명암]
- ❖ 마을공동체의 미래 : 서울 도심, 마을공동체가 가능한가? – tbsTV 특별기획 3부작 마을보고서 [3부- 마을공동체, 희망을 품다]
- ❖ 협력과 협동의 현장 마을
 - 우리마을카페오공과 우리동네사람들(청년의 협동으로 일군 느낌의 공동체)

2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의 작은 프로젝트 계획세우기



자치하고 자립하는 마을공화국을 꿈꾸는 충남 흥동마을 이야기

동영상 | 흥동이야기



마을 계획 100년을 수립해 꿈을 만들어가는 농촌마을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새로운 교육과 농업, 정치를 일구어가는 흥동마을은 1958년 '위대한(→더불어사는) 평민을 기른다'는 목표로 세워진 풀무학교가 있는 곳이고, 한국에서 가장 먼저 주민 주도 협동조합 운동(풀무신용협동조합, 풀무생활협동조합)과 오리농법 같은 유기농업 운동, 어린이집·도서관·지역신문·지역화폐를 실천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귀농·귀촌 운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다. 최근에는 사회적경제와 녹색 정치 운동을 실천하는 등 '세상을 바꾸려는 여러 새로운 실험들'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그런 흥동마을을 가꾸어온 마을 사람들이 직접 쓴 글들을 모아 엮은 책 '마을공화국의 꿈, 흥동마을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 담겨 있으면서도, 흥동에서 오랫동안 실천해온 다양한 실험들과 노력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 글을 쓴 마을 사람들은 농부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보건소 의사, 청년, 주부, 할아버지 등 마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이웃과 함께 살아온 이들이다. (출처: 교보문고 책 서평)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을 속에 만들고 싶은 작은 프로젝트 만들기

* 이제 '마을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도 마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상식이 된 시대에, '마을에서 시작하는 전환'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흥동마을 이야기를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자세히 조사해보고,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을 꿈꾸며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고 싶은 작은 공동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해보자.

- ➊ 가정과 마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포스트잇에 각각 3개씩 적기
→ 각자 학급 벽에 붙인 전지에 붙이기 → 동일한(비슷한) 주제끼리 합치기 → 각자 받은 스티커 3개에 이름을 적어 가장 해결하고 싶은 주제에 스티커 붙이기 →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계획서 만들기 팀 조직하기
- ➋ 팀별 선택한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인터뷰 또는 설문 조사하기
→ 인터뷰 및 설문 결과를 가지고 문제 관련 핵심 키워드 뽑아내어 만들고 싶은 최종 프로젝트명 정하고 프로젝트 진행 일정 및 추가 사례조사 등 역할 분담 계획 세우기 → 주제 관련 사례 조사 후 최종 계획안 협의 정리하기
- ➌ 팀별 발표하고 학급 투표로 우수 프로젝트 계획서 2개 선정하기

3

체인지메이커의 이해

학습목표

- ① 체인지메이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② 체인지메이커의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체인지메이커 – 베풋과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

김만덕(1739~1812)은 제주도에서 태어나 ‘기녀’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끝없는 도전을 통하여 부를 모았다. 조선후기 정조 16년부터 19년까지 4년이나 흉년이 들자 제주도에 굶어 죽는 이가 속출하였다. 이에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고 구휼미 500석으로 굶어가는 제주도민을 살렸다. 김만덕은 베풋과 나눔을 실천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선 사업가로 칭송받는다.



Mission

우리 나라 역사 속에서 김만덕처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경주 최부자를 들 수 있다. 경주 최부자에 대해 조사해 보고 최부자도 조선시대의 체인지메이커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1 체인지메이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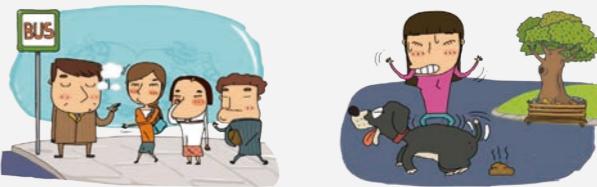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는 우리 사회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질과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개인의 문제보다는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가는 사람이다.

2 체인지메이커로 일상의 문제 바라보기

공동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대상이나 범위 등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공동체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일상적 문제, 사건적 문제, 혁신적 문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체인지메이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든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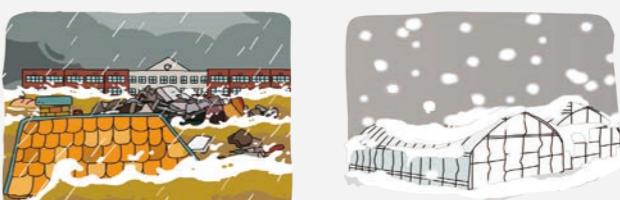
일상적 문제

예) 버스정류장 주변에서의 흡연, 산책로에서 발견되는 애완동물의 배설물 등



사건적 문제

특정한 계기나 사건에서 나타나는 비일상적이고 반응적인 문제
예) 홍수로 침수된 인도, 폭설로 주저앉은 비닐하우스



혁신적 문제

리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변의 문제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
예) 마을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개최하는 바자회



3 국내외 체인지메이커 만나보기

제주 올레길의 시작 (제주올레 서OO 이사장)

정부나 대규모 자본이 주도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일반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꿈꾸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을 개발하자는 것이 제주 올레길을 만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개발 정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광객이 유명한 관광지만 구경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지역 구석구석을 걸으며 제주도의 방언도 접해보고 제주도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모습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접해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지역사회에 외지 도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나이지리아 DMT MOBILE TOILET(아이작 듀로자이예)

나이지리아에는 공중 화장실이 부족해 길거리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거리가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연결되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오염물질이 식수원으로 유입되어 사람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경호원이었던 아이작 듀로자이예는 어느 날 만명의 하객이 방문하는 결혼식의 경호 계획을 세우던 중 그 곳에 화장실이 두개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임시로 18개의 화장실을 만들어 무사히 결혼식 경호를 마친다. 그 후 경호직을 그만두고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나이지리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MT(Dignified Mobile Toilet)라는 이동식 화장실 회사를 설립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성 가장 및 실업 청소년들에게 이동 화장실 관리 및 운영권을 주어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더 나아가 변을 모아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퇴비를 만드는 일에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연결하기도 했다.



1

학습활동

체인지메이커에 필요한 특성 알아보기

우리는 누구나 체인지메이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감능력, 팀워크, 협력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이 있다면 체인지메이커로서 더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안에 숨겨진 체인지메이커로서의 특성을 체크해 보자.

구성요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① 공감능력	남이 곤경에 처한 뉴스를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이 내 입장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파.				
	휴먼 다큐 프로그램을 보거나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다른 사람들이 왜 속상해 하는지 이해가 안될 때가 있다.				
② 팀워크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좋아한다.				
	경쟁보다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일의 결과가 좋다				
	의숙하지 않은 사람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되도록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다.				
③ 협력적 리더십	나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팀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리더인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책임을 진다.				
	앞에서 뛰어난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편하다.				
④ 문제해결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노력이 실패했을 때 힘이 빠지고 우울하다.				
	문제 해결에 실패했을 때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다시 시도한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생각하기 싫어 미루는 편이다.				

태국 판하섬 축구장 이야기(Panyee FC의 실화)

우리 동네 아이들은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축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축구를 하고 싶어도 공간을 찾아보기 힘든 작은 수상 가옥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의 제안으로 축구팀을 만들게 되었는데 경기장이 없어 축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축구장을 만들기로 하고 학교가 끝난 후에는 나무 조각이나 어선 뗏목을 모아 뭉쳤습니다. 드디어 울퉁불퉁하면서 훈들거리기도 하고 못이 여기저기 박힌 경기장이 생겼습니다. 공이 물에 자주 빠져 저희도 덩달아 물에 빠집니다. 우리가 만든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 미끄럽고 젖은 곳에서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작은 경기장 덕분에 발놀림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단 하루만 열리는 축구 토너먼트 경기 소식을 전단지로 접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실력을 알 수 없었지만 경기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새 유니폼과 축구화를 사 주었고 응원까지 와 주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 긴장이 되었지만 경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실력이 생각보다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경기장에서 이런 실력을 기른 것입니다. 큰 골대는 우리의 작은 골대보다 골을 넣기가 훨씬 쉬워 준결승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준결승부터는 뛰어난 팀이 많고 비까지 내려 힘든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축구화에 물이 가득 차 스피드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2점이나 뒤쳐졌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워 나머지 경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젖은 축구화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경기를 뛰기로 했습니다. 맨발 경기가 발도 훨씬 가볍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동점까지 만들었으나 끝나기 직전에 실점을 하였습니다. 실망은 했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후로 축구는 Panyee 마을의 최고 운동이 되었고 못이 안 박힌 운동장도 생겼습니다.



▲ 판하섬의 축구 소년들

동영상 | 태국의 판하섬에서 이루어진 감동적인 축구 실화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사례

4

학습목표

- ① 청소년 체인지메이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② 청소년 체인지메이커의 사례에 대해 알 수 있다.

무지개 식판(OO중학교)



학교마다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로 정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 위주로 메뉴를 짜 보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OO중학교 목동자반프로젝트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무지개 식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밥의 양에 따라 식판에 선을 그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걱 크기를 줄이면 밥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본인의 양보다 훨씬 많이 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먹을 밥의 양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주걱이 아닌 식판의 디자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OO회사의 지원으로 최종 제품이 나오기까지 테스트로만 식판 120여 개를 제작했는데 완성된 후 한 학급에서 실험해 본 결과 약 70%의 잔반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와 군부대, 대기업 등에서 무지개 식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시도가 급식 잔반을 줄이는 놀라운 효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동영상 | OO 투모로우 솔루션 _ 무지개식판 프로젝트



Mission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평소 불편하다고 생각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옆 친구와 얘기를 나눠 보세요.

1 청소년 체인지메이커로서의 문제해결 과정

우리가 속한 학교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체인지메이커의 경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학교의 변화를 가져온다. 학교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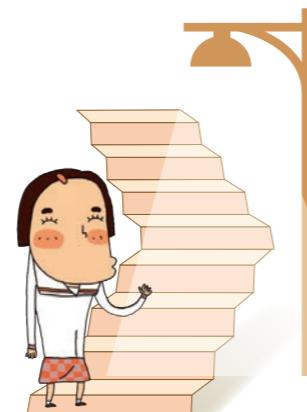
▲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발견



▲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공유



▲ 캠페인 및 행동하기



▲ 문제 해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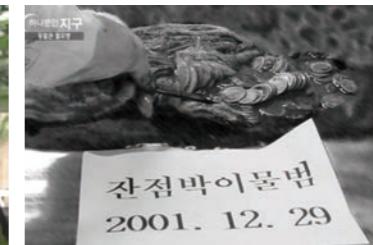
2 국내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사례

동영상 | Y여고 체인지메이커 학교생활 개선



Y여고 사례 : 행복한 동물원 만들기

EBS 다큐멘터리 '동물원 월요병'을 보던 중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동전과 먹이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여고생들이 '행복한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 EBS 동물원 월요병 화면 갈무리



▲ Y여고 동물원 사육사와의 인터뷰

동물원 사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루 관람객 5만명이 던지는 동전을 먹이로 착각하고 받아먹은 물범의 뱃속에 동전 200개가 들어있어 결국 죽게 된 이야기, 원숭이에게 먹이로 던지는 바나나를 서로 받아먹으려고 싸우다가 대장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죽이게 되는 이야기, 제초제가 뿌려진 줄 모르고 풀을 뜯어 던져준 풀을 먹고 동물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생각보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여고생들은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먹이나 동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이 동물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런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열게 된다.



▲ Y여고 동물원 앞 캠페인 모습

더 나아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즈대회, 연극,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동물원의 월요병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물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을 제작하기 위해 스토리펀딩을 진행하기도 했다.



3 해외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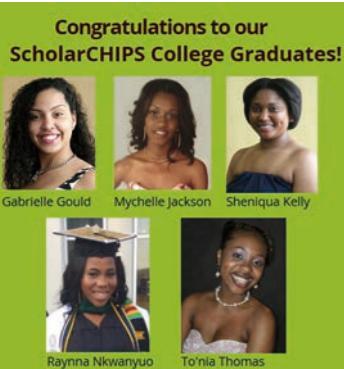
쟈스민 아링턴(Yasmine Arrington)은 미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님이 감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장학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전과자들은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 역시 3살 때 아버지가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쟈스민의 나이 16살이 되어서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쟈스민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중에도 부모님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장학금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다.

이것은 등록금을 못 낸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수의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전과로 인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차별적 인식에 의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인권차별적인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4월 고등학교 1학년 때 ○○재단의 유스벤처 프로그램에 참여한 쟈스민은 당시 시드머니로 제공된 백만원의 수상 금액으로 수감자 및 출소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기금인 ScholarCHIPS를 조성했다.

당시 16살이었던 쟈스민의 감동 어린 이야기에 주목한 워싱턴포스트의 한 기자는 기사를 썼고 쟈스민의 이야기는 신문을 비롯한 각종 방송을 통하여 미국 전역으로 널리 퍼졌다. 4년 만에 3만 달러를 모금하여 전과자 자녀 17명이 대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하게 되었다.

대학생이 된 쟈스민은 여전히 ScholarCHIPS를 통해 지역사회 및 대학들과 협력하며 모금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전역의 수감자 및 출소자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대학 장학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을 도와주는 튜터링, 카운슬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단을 꿈꾸고 있다.

출처 | <https://goo.gl/Ypc9ks>

4 누구나 체인지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S고 사례 : 시각 장애인의 불편함 해결하기

S고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에서 체인지메이커 행사를 개최하는데 행사에 참가한 팀 중의 한 사례를 살펴보자.

○○팀에서는 현재 연고와 소화제 등 일부 의약품에만 점자 표기가 되어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불편함을 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사에 참가했다.

모든 의약품의 점자 표기 의무화뿐만 아니라 모든 음료수에 음료라고만 표기된 점자를 음료의 맛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점자로 표기하자는 내용을 전교생에게 알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어느 것이 콜라입니까?

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상용품에 점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에도 걸림돌이 되는 큰 원인이다. 제품 하나당 점자 표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의약품과 맛의 구분이 필요한 식품, 위험이 수반되는 일상용품에는 자세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점자 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 문제로 바로 해결이 어렵다면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어 시각장애인에게 판매할 경우만이라도 점자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자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벌여 인식 개선에 앞장 섰다.



빌 드레이튼(BILL DRAYTON) 이야기

체인지메이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아쇼카의 빌 드레이튼

빌 드레이튼은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여 이를 후원하는 세계적인 후원 그룹인 아쇼카 재단을 설립하였다. 체인지메이커를 후원하기 위해 1981년 5만 달러로 시작한 아쇼카 재단은 매년 3,5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성장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3,000명 이상의 선도적인 체인지메이커들을 발굴하여 후원하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뛰어난 사회혁신기업가(Leading social entrepreneurs)들은 물고기를 잡아주거나,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업 분야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은 견고합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팀으로 함께 일하고, 새롭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끌어나가는 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회의 성공은 이제 그 안에 체인지메이커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달렸습니다.”

빌 드레이튼 – 아쇼카 창립자 –



세계 Top 10 사회적 기업가를 찾아서 '아쇼카 재단' 창업자 빌 드레이튼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8/2010051800428.html

❖ 아쇼카 재단에서 후원하는 체인지메이커들을 아쇼카에서는 펠로우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도 아쇼카 재단에서 후원하는 펠로우들이 있다. 국내 펠로우에 대해 조사해 보자.

사회적경제와 공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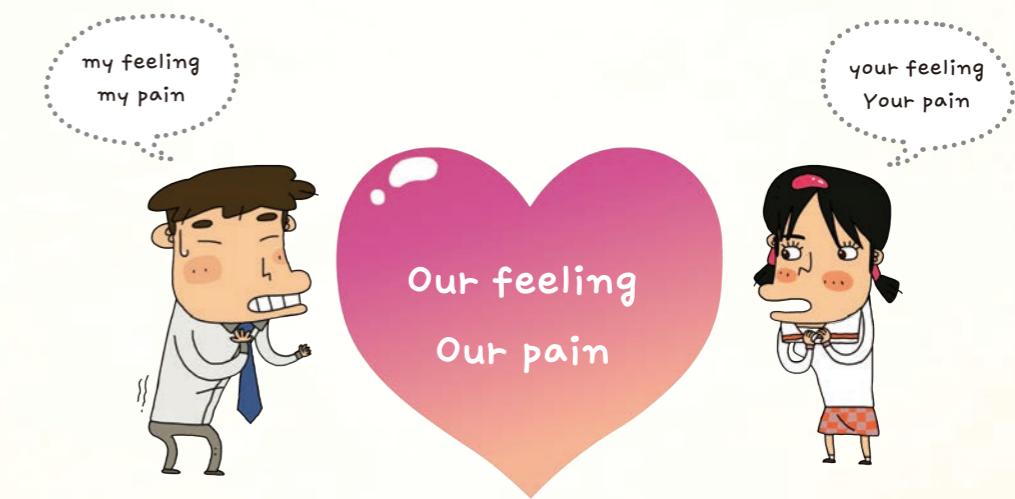
학습목표

- ①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 서로 공감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② 사회적경제의 실천에 있어 공감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공감이 왜 필요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흔하게 물건이나 지식,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이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다. 또 나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그 속에서 웃고 울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나의 감정에 동조해 주면 공감이 일어나고, 공감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공감 에너지는 상호 간에 교류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자신과 사회 발전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공감’과 ‘협동’은 사회적경제를 위한 토대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기에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배려와 돌봄은 공감이 있을 때에 가능해진다.



Mission

공감을 할 때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1 서로 공감하기

한쪽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공감할 때 공감의 능력은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기로 약속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공감하기가 편해지고 쉬워진다. 왜냐하면 내가 공감하면 상대방도 공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공감해서 감정적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공감의 과정을 숫자로 익히기

SNS의 ‘좋아요’ 숫자가 기업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느낌과 감정의 계량화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를 알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그 대가를 돈의 숫자로 표현하고 그 흐름을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감의 크기와 방향을 숫자로 표현해 보면 감성과 공감의 흐름을 이해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공감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공감의 상승 작용

공감의 상승 작용은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친구 사이 등과 같이 서로를 동질적으로 생각하고 공감하는 관계에서 쉽게 발견된다.



공감의 상승 작용에서 생기는 공감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해 보면 숫자의 크기가 커지는 상황이 폭풍처럼 일어나면서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최대치의 공감보다 작은 공감이 발생한다. 그러나 작은 공감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공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공감이 서로 상승하며 증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대한 긍정적인 공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공감의 상승 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공감의 상승을 위해서는

첫째, 공감의 행복감이 자신에게 먼저 생기고 나서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둘째,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갖기로 약속해야 한다.

셋째, 논리적인 주제보다 슬픔, 기쁨 등과 같은 감정과 관련된 주제가 보다 쉽게 공감의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

4 사회적경제와 공감

경제란 인간이 집단적으로 타인과 지구의 관계 속에서 살림을 영위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가족과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삶 속에는 돈과 시장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다. 경제는 다양한 사회관계들, 즉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고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창조한 모든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의 가격조정 능력을 말하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쓰인『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이 본디 이기적이지만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할뿐더러 타인의 안부를 묻는 공감이란 천성을 지녔다고 봤다.

사회적경제란 시장과 정부의 경제활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는 여러 형태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즉 돈보다는 사회적 가치 또는 사람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곧 공감의 경제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은 공감이라 는 뿌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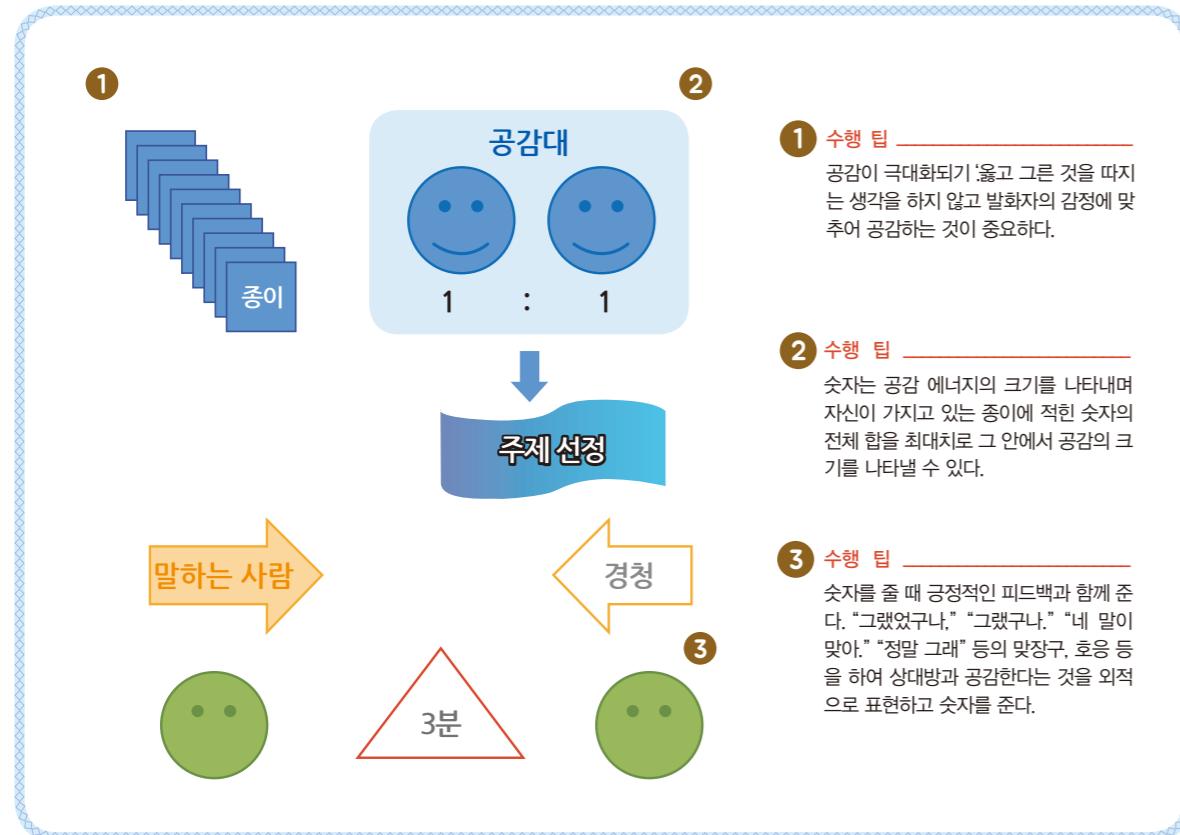
※ 공감하기 쉬운 사람과 1:1 공감 대화 팁

말하기

- 나에 대해서 말하기(우리와 너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 말할 때 다른 대상을 비판하지 않기.
- 논리가 아닌 마음의 느낌 위주로 말하기.
- 자신의 마음에 느껴지는 어려웠던 상황의 감정을 충분히 말하되, 논리적인 설명은 짧게 한다.

듣기

- 말하는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끼어들기, 비판, 조언 등을 하지 않기.
- 말하는 사람의 말이 끝난 후 호응하고 공감하는 강하고 긍정적인 짧은 말을 하기.
- 논리와 비판의 생각을 가지고 듣지 않고, 전적인 수용과 지지의 마음으로 듣기.
-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가 행복한지 체크하기.
- 들을 때 공감의 감정이 나오는지 체크하기.



1

학습활동

공감의 상승 게임하기(친구와 1:1 공감 대화 나누기)

自身과 상황이 비슷한 사람 혹은 친한 친구들과 1:1로 공감의 상승 작용을 경험해 보자.

1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한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2번 말하고 2번 공감한다.

준비 단계

1 단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비슷한 사람끼리 1:1로 짹을 짓는다.
3명인 경우: 빈 카드 15장 이상

2 단계 숫자를 적을 수 있는 종이를 충분히 준비한다.

3 단계 공감대를 이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기쁨, 슬픔 등 같은 감정을 주제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나 상황에 따라 감정이 아닌 주제를 선택할 수 있음).

4 단계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이 가진 종이에 10이라는 숫자를 적는다. 각자가 별명 이름을 정한다(편의상 A, B라 한다).
A = 1
B = 1

5 단계 전체 시간을 계산해서 한 사람당 2~5분 이야기할 시간을 정한다.

대화와 공감 단계

6 단계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한다. A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얘기하고 B는 공감하며 경청한다.

7 단계 B는 경청 후에 자신이 가진 10이라는 숫자 범위 내에서 공감하는 감정의 크기를 2장의 종이에 같이 적는다(예를 들어 0~1 사이의 숫자가 가능하다).
A = 1
B = 1 + 1 + 1

8 단계 B는 적은 종이를 먼저 자신이 한장을 가지고, 나머지 한장을 A에게 준다.
A = 1 + 1 (최대치)
B = 1 + 1 (최대치)

9 단계 이번에는 B가 이야기하고, A가 공감하며 경청한다.

2 발표자는 수행 후에 느낀 점을 적어 발표하고 듣는 사람은 발표 내용에 공감한다.

10 단계	A는 경청 후에 자신이 가진 숫자의 합의 범위 내에서 공감하는 감정의 크기를 2장의 종이에 같이 적는다. (예를 들어 가진 숫자의 합이 2라면 0~2 사이의 숫자가 가능하다)	A = B =
11 단계	A는 적은 종이를 먼저 자신이 한장을 가지고, 나머지 한장을 B에게 준다.	A = (최대치) B = (최대치)
12 단계	같은 주제로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한다. A가 이야기하고, B가 공감하며 경청한다.	
13 단계	A는 경청 후에 자신이 가진 숫자의 합의 범위 내에서 공감하는 감정의 크기를 2장의 종이에 같이 적는다. (예를 들어 가진 숫자의 합이 2라면 0~2 사이의 숫자가 가능하다)	A = B = (최대치)
14 단계	같은 주제로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한다. A가 이야기하고, B가 공감하며 경청한다.	A = (최대치) B = (최대치)
15 단계	이번에는 B가 이야기하고, A가 공감하며 경청한다.	A = (최대치) B = (최대치)
16 단계	A는 경청 후에 자신이 가진 숫자의 합의 범위 내에서 공감하는 감정의 크기를 2장의 종이에 같이 적는다. (예를 들어 가진 숫자의 합이 2라면 0~2사이의 숫자가 가능하다)	A = B = (최대치)
17 단계	A는 적은 종이를 먼저 자신이 한장을 가지고, B에게 나머지 한장을 준다.	A = (최대치) B = (최대치)
18 단계	A와 B가 서로 행복한 감정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한다. 즉, 상대에게 공감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A = 32 (최대치) B = 32 (최대치)

공감의 상승이
일어난 이유?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은 이유?

숫자와
공감의 크기,
행복감의 크기가
일치하는지?

공감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현상 확인

서로 숫자가 같지만
느끼는 공감의
행복감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

수행 과정에서
느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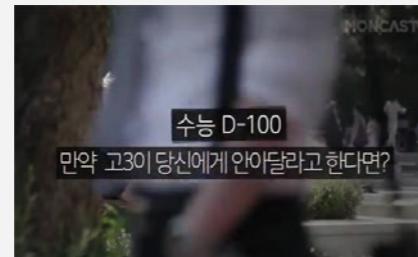
비슷한 상황에 대한 서로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1 두 가지 상황을 관찰하고 자신의 느낌을 기억한다.

동영상 | 고3이 “너무 힘든데 안아 주세요”라고 한다면?



사례 1



고3이 “너무 힘든데 안아 주세요”라고 한다면?

사례 2



눈물 나게 고마운 사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에 올라온 한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사진에는 달리기 시합에 나온 초등학생 다섯 명이 손을 잡고 나란히 결승선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중 오른쪽 맨 끝에 선 아이는 유독 키가 작고 뚱뚱했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OO초등학교 가을운동회 모습이다. 이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린 이용자 ‘테라바다’는 “사진 맨 오른쪽 아이는 또래 보다 작고 뚱뚱해 항상 꼴찌만 하는 아이였다”며 “먼저 달리던 친구들이 갑자기 멈춘 다음, 꼴찌로 달려오던 친구의 손을 잡고 같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이 커뮤니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선정되는 등 큰 반향이 일자 급기야 사진 속 주인공의 큰 누나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더욱 자세한 사연을 풀어놓았다.

“꼴찌만 하는 내 동생을 위해 친구들이 결승선 앞에서 뒤로 달렸다”

누나는 “동생은 ‘연골무형성증’을 앓는 지체장애 6급이며, 쉽게 말하면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사진은) 초등학교 6학년 동생의 마지막 가을 운동회였다”고 전했다. 누나에 따르면 동생에게 가을운동회는 매년 상처가 되는 날이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벌어지는 친구들과의 격차를 느낀 동생에게 달리기 시합은 특히 그랬다. 한번은 동생이 운동회 날 아침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해 누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지난해 가을운동회 때는 담임선생님이 혼자 남아 달리고 있는 동생과 함께 뛰어주었고, 이 장면을 본 가족들은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올해 가을운동회에서는 담임선생님 대신 친구들이 동생의 결을 지켜주었다. 누나는 “같은 조 친구들이 계속 뒤를 보면서 달리더니, 결승선을 앞에 두고 뒤에 있는 동생에게 모두 달려왔다”며 “누구 하나 꼴찌가 되지 않고 모두가 일등인 달리기 경기였다”고 전했다.

사실 이 장면은 같은 반 친구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다. 아이들은 매번 꼴찌만 하는 친구를 위해 담임선생님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한 아이들은 모두의 손에 찍힌 ‘1등 도장’을 동생에게 내보이며 말했다.

“우리 다 1등이야.”

누나는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동생과 가족이 영영 울었다”며 “멋진 친구들과 ‘XX이형 이겨라’라고 크게 외쳐준 동생들 모두가 정말 칙하고 소중한 친구들”이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2 두 명이 짹을 이루어 위 사례 1, 2에 대한 느낌을 표현해보자.

- 1 짹과 함께 사례 1, 2 중 하나를 중복되지 않게 선택
- 2 자신이 선택한 사례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빈칸에 작성
- 3 한 사람씩 교대로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짹에게 들려주고 짹은 이를 자신의 활동지에 옮겨 적음
- 4 짹의 사례에 대하여 느낌을 공감한다면 공감을 표현하기
- 5 공감하지 않는다면 짹의 느낌을 이해해보려 노력하기
- 6 전체 앞에서 위 짹활동 공유하기

활동지 사례 1, 2에 대한 느낌 표현하기

	사례1. 고3이 “너무 힘든데..” (_____의 느낌)	사례2. 눈물 나게 고마운 사진 (_____의 느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예) 고3 학생 or 숙녀, 아줌마	예) 키작은 아이 or 친구들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그 다음 장면 예상하기		



2

단원

고등학교 사회적경제 워크북 사회적경제의 모습 살펴보기

학습내용



- 6 사회적기업의 이해
- 7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사례
- 8 협동조합의 이해
- 9 협동조합으로 배우는 사회적경제
- 10 학교협동조합의 이해
- 11 학교협동조합으로 배우는 사회적경제
- 12 마을기업의 이해
- 13 마을기업의 유형과 사례
- 14 자활기업의 이해
- 15 공정무역의 이해
- 16 공정무역의 사례와 실천
- 17 공유경제의 이해와 사례

6

사회적기업의 이해

학습목표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안경?

옥스퍼드대학교의 조슈아 실버 교수는 도수 조절이 가능한 액체 안경을 개발하였다. 이는 가난한 저시력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다. 그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안경을 개발하려고 했을까?



큰 비용과 자원 낭비가 큰 일회적인 행사인 결혼식, 아름답지만 친환경적인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 대지를 위한 바느질 : 친환경적인 재료와 생산방법을 통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최근 커피 전문점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의 양도 늘어나고, 커피 한잔을 만드는 데엔 원두의 0.2%만 사용하고 99.8%가 버려진다. 이 찌꺼기는 땅에 묻혀도 잘 썩지 않고, 카페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토양을 오염시켜 땅속 동식물을 해치기도 한다. 많은 양의 커피 찌꺼기들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데,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 꼬마농부 : 단순히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커피찌꺼기에 버섯을 재배하여 버섯 재배 키트를 개발, 판매, 환경과 관련된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는 기업

Mission

여러분은 어떤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싶은가요?

1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필요성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의 성격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적 목적을 포함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범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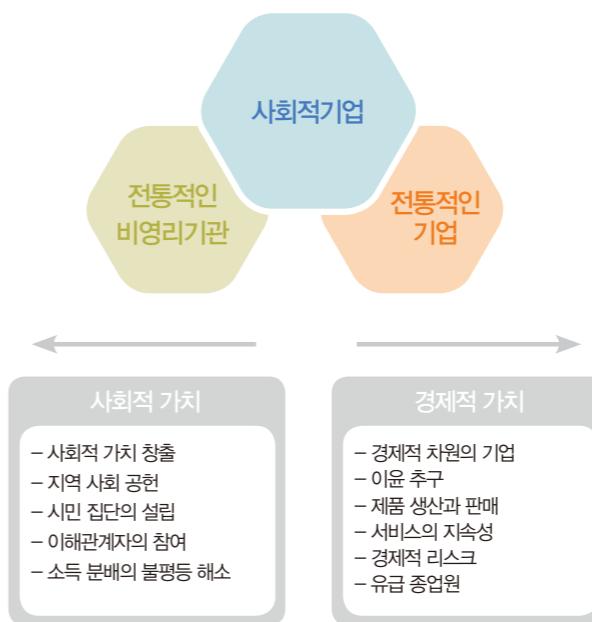
사회적기업은, 사회 문제 해결의 과정을 넘어서 함께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 경제 위기 이후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복지 국가의 위기, 사회적 양극화 및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자 해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돌봄이나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줄어드는 일자리, 그로 인한 분배의 악화, 갈수록 높아지는 빈곤율과 불투명한 노후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소에 기여하는 등의 순기능도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영역과 가치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기업의 영역과 가치

사회적기업 탐색하기

다른 나라의 사회적기업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을 조사하여 비교해 보자.



동영상 | 수제쿠키 사회적기업 – 위캔쿠키

1 다른 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해 보자.

사회적 기업명	
사회적기업이 속한 국가	
사회적기업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사회적기업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동영상 | 노숙인들의 자립을 돋는 잡지 – 빅이슈



2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해 보자.

사회적 기업명	
사회적기업이 속한 국가	
사회적기업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사회적기업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3 각 모둠별로 조사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서로 비교해 보고, 각기 다른 사회적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토의해 보자.

사례읽기

오요리아시아 – “이주 여성·노숙인·취약계층도 일자리 기회 줘야”

2009년 11월 문을 연 오요리아시아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소박한 목표를 갖고 출발해 초반의 어려움을 딛고 건실하게 수익을 내며 제자리를 잡았다. 지난 5년간 20여 명의 이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직업 교육을 했고, 다문화 요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함께했다.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이주 여성이나 청년들에게 컨설팅도 해 주고 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1/05/0302000000AKR20141105126000372.HTML>

사회적기업, 생산자와 소비자를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다



‘둘러앉은 ○○’은 제대로 된 생산자를 찾고 농가가 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 외에도 농가가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하고 같이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농부의 땀과 노력으로 태어난 건강한 먹거리…

‘둘러앉은 ○○’은 그 탄생 과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소비자와 농부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길 바란 것이죠. 이런 노력들이 요즘 서서히 결실을 맺어서 생산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강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52>)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사례

학습목표

사회적기업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름다운 가게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 시민의식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가게가 갖는 사회적 의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Mission

- ① 아름다운 가게가 갖고 있는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② 아름다운 가게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 전체 근로자 중 취약 계층의 고용 비율이 50% 이상.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새터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함.

❖ ○○○ 아이팩 (새터민의 희망일터)

○○○아이팩의 근로자 대부분은 새터민(탈북자)이다. 새터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돋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사회복지법인 ○○나눔재단이 ○○에너지와 협력하여 만들었다. 현재 거래처가 50여곳이 넘는 활발한 작업 공장으로 새터민의 자립·자활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박스 제조가 있다.



2 사회 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50% 이상.
- 사회 서비스 :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 케어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는 기업)

노인과 장애인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 배려하면서도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사회 내 정직하고 질좋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요양기관, 복지 용구 사업,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등이 있다.



3 지역 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다.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유형.

❖ ○○ 풀무나누미 영농조합법인 (지역 농업 공동체를 꿈꾸다)

○○학교와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형성해 온 흥동 지역의 많은 시설 기반과 인적 기반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포장 및 도농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한편, 농촌 여성 인력의 생산 기공 활동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가정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 간의 교류를 통한 생산·소비자 공동체를 구현하였다.



4 혼합형 사회적기업

기업의 주된 목적에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 제공이 혼합되어 있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 계층의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이다.

❖ ○○ 도시락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도시락은 결식 이웃에게 무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취약 계층에게는 조리와 배송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사업으로는 결식 이웃 무료 급식, 도시락, 김치 등이 있다.



5 기타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환경, 산림 보호, 불특정 대상 공연 등.

❖ ○○ 단 (버려진 것을 새롭게 살린다)

○○단은 혁신적인 공연, 창의 교육, 공동체 디자인 사업과 미디어아트 통합 브랜드 'dialog'로 사회 각 분야와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일본, 홍콩, 미국, 런던 등 글로벌 공동체를 만나며 삶의 활력을 디자인하는 문화 예술 기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연, 교육, 디자인, 네트워크 등이 있다.



1

학습활동

사회적기업의 성공 요인 찾아보기

❶ 사회적기업 사례 기사를 읽고 사회적기업의 성공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사회적기업 ○○ 바이오, '공정다단계 유통회사 지○'과 동반 성장

○○ 바이오(주)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B Corp' 인증을 통해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을 준수하며, 유해 화학제품으로 인한 사회문제 개선, 지역경제 낙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기업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 사회적 선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 바이오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신뢰받고 있는 친환경 세정제, 유아용 제품 '스노우베이비' 등을 비롯하여 체내 흡수율이 뛰어난 인삼 사포닌 건강식품 'CK 밸런스H' 등을 생산하여 공정다단계 유통회사 지○(주)과 사회적기업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제너럴바이오의 친환경 제품과 사회적기업들의 우수제품을 선별하여 판매하고 있는 지○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여 유통 선진화를 통해 고객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출자된 유통 전문 회사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15. 11.18.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8000936>

❖ 위 기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 우리 모둠이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면, 어떤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좋을지 의견을 모아보고, 그 이유를 적어 보자.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회적기업의
유형 선택 이유

❖ 모둠별로 정리한 사회적기업의 성공 요인에 대해 서로 비교해 보고, 사회적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자.

협동조합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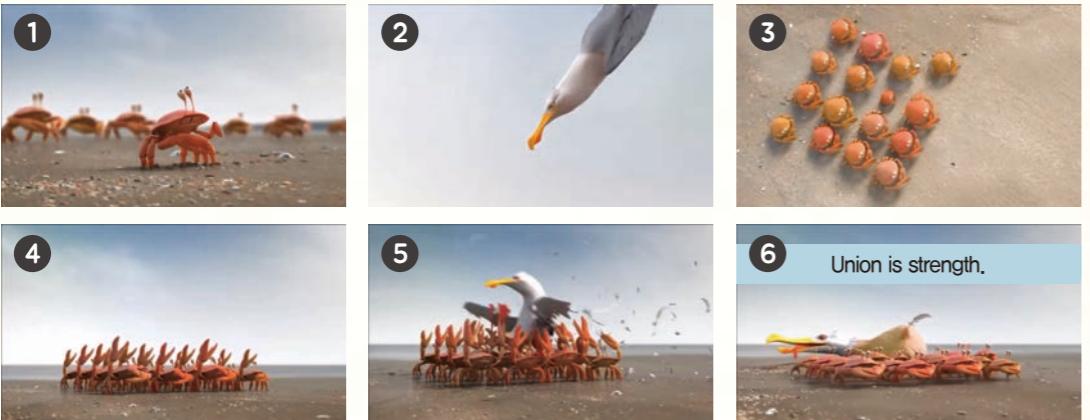


학습목표

- ① 협동조합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② 협동조합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협동이란 뭘까?

“Union is strength(단결이 힘이다).”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모이면 더욱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재미있게 풍자한 영상도 있다. 해변을 거닐던 바닷새들은 갈매기의 공격을 받게 되자 서로 뭉쳐 갈매기에 대응함으로써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동영상 | Union is strength (단결이 힘이다)



Mission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은 사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공동의 출자를 통해 조합원을 구성하고 구성된 조합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이다. 조합원들은 필요에 따라 소비자, 생산자 또는 여려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특성과 사업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2 협동조합의 목적

협동조합은 조합원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의사 결정 시 1인 1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구성원의 만족과 주인 의식을 높일 수 있다.

-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 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함으로써 편의 증가
-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 계약 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 받음
- 근로자 :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 수준을 높임

이 밖에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경제 위기 시 경제 안정 효과 등의 경제적 효과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고 ‘일을 통한 복지’에도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의 정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의 정의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3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의 유형은 주된 조합원이 누구이고 이들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사업을 벌이는가에 따라 소비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5가지로 나뉜다.

소비자 협동조합

-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을 벌이는 협동조합.

예 한살림, FC바로셀로나 등



사업자 협동조합

- 사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 판매나 자재의 공동구매 그리고 그 밖의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농어민들이 자신의 농어업을 더 잘하기 위해 만든 생산자 협동조합도 이에 속함).

예 세탁소협동조합, 수제화협동조합 등



직원 협동조합

- 직원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

예 커피노동자협동조합,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등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소비자(또는 구매 사업자), 직원, 자재 공급자(또는 생산자), 후원자 중 두 그룹 이상의 그룹이 함께 조합원이 되는 협동조합.

예 이웃문화협동조합, 지구촌협동조합 등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들이 조합원의 필요만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협동조합.
-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성격을 가져야 한다.
- 사업의 40% 이상을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해야 한다.

예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돌봄협동조합 등



1

학습활동

협동조합 설립하기

모둠원을 구성하여 모둠별로 협동조합을 선택하여 설립 내용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사회적 기업명

모둠원 :

협동조합 유형 선택하기

소비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협동조합 이름짓기

협동조합 이름의 의미는?

협동조합 사업 아이템 정하기

우리 모둠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9

협동조합으로 배우는 사회적경제

학습목표

협동조합의 특징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미래다

최근의 우리 사회는 개개인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하지 않으면 해결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동영상 | CMB 스페셜 – 협동조합새로운미래다



Mission

오늘날 협동조합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차이점

협동조합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그 목적과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 조직과는 차이가 있다.

1인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업은 기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여러 명의 조합원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1인 1표의 동등한 결정권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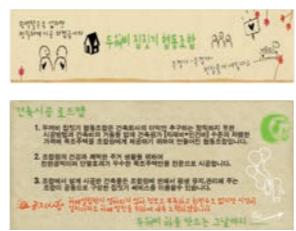
일반 기업의 목적은 경제적인 수익 창출이지만 협동조합은 수익을 추구하기 이전에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합 운영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경쟁보다는 협동,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의 조직 유형이다.

❖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최우선 가치	조합원 실익 증진	이윤 극대화
운영 방식	1인 1표	1주 1표
소유 방식	조합원 소유 (독점 소유 불가)	투자자 소유 (독점 소유 가능)
설립 인가	신고제	신고제
특징	공동 출자, 공동 소유, 이익 공유, 다수 참여, 영리 사업 가능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의욕이 낮음.

사례



주식회사

주식의 발행을 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는 회사로서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을 지며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는 회사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2 협동조합의 7원칙

협동조합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왔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면서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이 차별적으로 만들어졌다. 협동조합 7원칙은 조합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원칙들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정리한 것이다. 이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는 조직이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한다.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진다.
-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된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된다.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 자산이며,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 잉여금은 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② 사업 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 제공, ③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한다.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된다.
-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

학습활동

협동조합의 의의 생각해 보기



‘로치데일 개척자 이야기’ 영상을 보고 생각해보기

동영상 |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844년 영국 로치데일에서 문을 연 최초의 소비조합 상점.
현재는 소비조합 박물관으로 운영.

비영리 소비자 협동조합인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조합’은 누구나 1파운드의 가입비로 가입할 수 있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경영은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이 선출한 이사회나 관리자가 하되 수익은 각 조합원이 구매한 양에 따라 배당하며, 수익의 일정 비율은 조합원의 교육에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워 운영했다.



사진 출처 | <http://www.rochdalepioneersmuseum.coop/>

로치데일이 좋은 물건을 정직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점점 조합원과 상점이 증가했고, 조합의 수익금은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것 외에도 당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과 학교를 세우는 등의 교육과 조합원의 복지에 투자되었다. 로치데일 조합원 사이에는 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 서로 도우며 서로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다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시대에 앞서 도입한 것이 많았다. 영국의 보통선거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남녀 동등한 투표권과 배당금을, 1907년(영국 법 제정 90년 전)부터는 최저임금제도를, 그 외에도 연금이나 근로 환경 개선, 축구 클럽 운영, 영국 최초의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의 현대의 복지제도를 앞서서 도입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배려로 유명하다. 심지어 조합원이 전쟁에 징집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을 계속 지불하였고, 귀향 후 복직을 보장하기도 했다.

*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오늘날의 산업 현장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토론해 보자. (노동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인권 보호, 공정한 임금 체계 등)

- 세계 선진국가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인구의 25~40%에 이르게 되었고, 유엔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최근 세계와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 학교나 마을에서 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문제를 찾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000협동조합 만들기’ 계획안을 토의해보자.

학교 매점 협동조합 1호 구로구 Y중학교 가보니

서울 구로구 Y중학교 매점 '여물점'은 특별하다. 이곳에서는 친환경 재료로 만든 먹을거리만 판다. 우리밀 70%로 만든 링 모양 과자, 한우가 함유된 라면 과자, 유기농 설탕과 국내산 양파로 만든 양파 베이글, 국내산 과일로 만든 주스 등 간식의 격이 다르다. 올가나 초록마을, 해가온 등 친환경 전문매장이나 마트·백화점의 친환경 코너에서나 만날 수 있는 품목들만 취급 한다. 가격은 시중보다 30% 정도 싸다. 학생들의 주머니사정을 감안해 지역 생활협동조합에서 특별 가로 제공한다.



지난 5월 20일 여물점을 찾아갔다. 여물점 앞 벤치에서 관계자들을 만났다.

여물점에서 만난 Y중학교 학생들은 "우리 학교 매점 쌤!"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특히 엄마가 좋아하세요"라고 했다. 여물점은 7개월 전에 문을 열었다. 친환경 매점으로 바뀌기 전, Y중학교도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브랜드 인지도 없는 싸구려 음식을 팔았다.

500 ~ 600원짜리 튀김과자, 1000원짜리 햄버거와 피자가 주요 메뉴였다.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학생들의 맛 평가는 어떨까. "밋밋하다"는 게 중평이었다. 박○○학생(3년)은 "예전보다 안 짜고 안 달다", 조○○학생(3년)은 "처음에는 맛잇 해서 맛이 없었는데 자꾸 먹다 보니 익숙해졌다"라고 말했다. 김○○(1년) · 김○○학생(3년) 자매는 "먹으면서 웬지 순해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여물점은 '여유롭고 물 좋은 매점'이라는 뜻으로 공모를 통해 지었다. 나무 재질로 만든 은은한 색감의 매점 인테리어는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완성됐다. 후줄근하고 쇠창살이 보이던 기존 매점과는 딴판이다. 여물점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표방한 친환경 학교 매점 1호다. 운영 주체는 학부모들로, 자리가 잡히기까지 처음 3개월 동안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됐다.

여물점의 판매 수익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다.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해 장학금이나 복지기금으로 쓰인다고 한다. 흥○○이사는 "여물점은 다른 학교의 매점과 운영 목적이 다르다.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바람직한 먹을거리 제공과 학생들의 복지 증진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 주간조선, chosun.com, 2013.05.27. 김민희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6/2013052600901.html

○○ 제과점 협동조합

Q1. 반갑습니다. 제과점 사장님들의 모임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희 협동조합은 'BCP(제과 제빵 기술자들의 모임)'에서 처음 출발했습니다. 1997년부터 연령대가 비슷한 울산의 제과 기술자들끼리 모였는데 처음엔 제과 기술 교류와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요. 지금도 메아리 복지원에 매달 세 번씩 돌아가면서 봉사하러 가는데요. 우리는 빵을 만들 줄 아니까 청각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빵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 매장 운영을 위해서 정보 교류도 했는데 한 15년 정도 계속 해 오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몇 해 전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비전 있는 사업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기업과 메이저급 중소기업들도 제과점 진출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력난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자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협동조합이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 위 사례에서처럼 제과점 업주들이 공동 작업장 및 공동 판매장을 통해 활동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

울산제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제과점 숫자가 120개가 채 안 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200개가 넘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프랜차이즈 빵집 때문이죠. 개인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본도 없고 사실 이 일밖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120여개 제과점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은 곳이에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올해 풀린다고 하는데 다시 5년 전처럼 돌아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상생을 근거로 거리 제한과 같은 규제들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2년 전부터 동네 빵집의 500미터 주변에는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왔어요.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coop.go.kr/COOP/introduce/dmstcCase2.do>)

❖ 위 사례에서처럼 제과점 업주들이 공동 작업장 및 공동 판매장을 통해 활동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

10

학교협동조합의 이해

학습목표

- ① 학교협동조합에 대해 알 수 있다.
- ②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인 의미와 수익금 활용 사례에 대해 알 수 있다.

매점빵의 진실

학교 안, 멀거리 사각지대 '매점빵'이 수상하다!

“매점빵을 먹고 단체로 배탈이 났어요.”

“곰팡이 핀 빵이 자주 나와요.”

“빵에서 4cm의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별레와 이물질이 수시로 나오는 것은 물론, 곰팡이 핀 빵이 발견되는 매점빵. 최근엔 매점 빵을 먹은 학생 15명의 집단 배탈까지 '매점 빵'에 관한 충격적인 제보. 도대체 학교 매점 빵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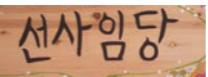
학교 매점에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면 좋을까요?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세요.

1 학교협동조합이란?

여러분은 앞에서 협동조합에 대해 배웠을 것이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학생 복지나 교육과 관련이 있는 문제를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매점 사업을 하는 아래의 학교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S고 푸드드 날터



▲ S고 선사임당



▲ G고 재울이네

학교에서 매점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들 학교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매점을 운영하면서 친환경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여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고 매점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학생 복지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매점은 먹거리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 S고 푸드드 날터



▲ S고 선사임당



▲ G고 재울이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대부분 매점을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수학여행, 급식, 교복 사업도 협동조합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S고 푸드드 날터



▲ S고 선사임당



▲ G고 재울이네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2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의미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조직이다.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배우며 나눔과 배려, 협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매점이라는 공간이 민주시민교육의 장, 교육자치의 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점을 단순히 먹거리를 사고파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매점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



▲ D고 총회



▲ D고 이사회



▲ D고 분과위원회

위의 사진에서처럼 학교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매점에서 학생들은 총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짐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회적경제를 실천할 수 있다. 지역과 함께 하는 삶을 경험함으로써 졸업 후 지역사회에 나가서 더 쉽게 지역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공동체적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다. 친구, 선생님, 학부모님과 소통하고 타협하며 때로는 양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경험을 해 봄으로써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힘을 바탕으로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교육은 반드시 학교협동조합 법인이라는 형식 안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매점이 없는 곳도 있고 매점이 있어도 학교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전환하기에는 복잡한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경제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가능하다.

S고등학교에서는 학교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교복이나 중고책 등의 되살림 사업을 함으로써 벼려질 뻔한 물건을 재활용하고, 학생 스스로 협동조합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체험한다.



▲ S고 교복 되살림 사업



▲ S고 수능교재 되살림 사업



▲ S고 학교협동조합 워크숍

3 학교협동조합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할까?

❖ D고등학교의 천원교실

D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조합원의 재능 기부를 통해 '천원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요리, 꽃꽂이, POP, 천연 화장품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수강료 천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는 학교협동조합 수익금으로 지원한다.



▲ D고 천원교실

❖ S고등학교의 각종 교육비 지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 창업을 해봄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페스티벌(창업 페스티벌)을 진행하는데 초기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아트페어(미술작품 전시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다.



▲ S고의 다양한 교육행사

❖ '조합원의 날' 행사 진행으로 친목 도모

조합원의 날이나 워크숍을 통해 조합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때 사용하는 비용은 협동조합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조합원의 날'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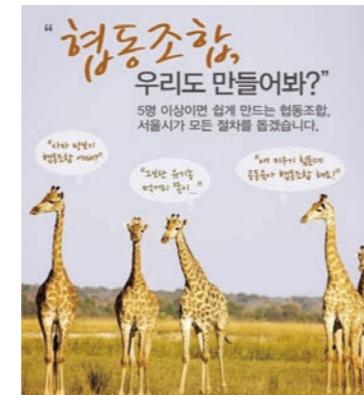
❖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

그 외 학교협동조합의 수익금은 대부분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



▲ 학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함께 하려는 다섯 명 이상의 친구들이 모일까?

학교에서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 것 중에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우리가 직접 사업해 볼 만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써 보자.

예시



매점에서 판매하는 고열량 · 저영양 식품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11

학교협동조합으로 배우는 사회적경제

학습목표

- ① 학교협동조합으로 배우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② 사회적경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알 수 있다.

함께 만드는 학교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으로 공동체 시민의식과 협동심을 키우고 무엇이든 우리 스스로 결정하며 삶에 기반한 경제를 배울 수 있어요.



참여와 소통의 문화



모든 조합원이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



1인 1표의 결론



학교 협동조합 수익금을 학생 복지에 사용



Mission

학교협동조합을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세요.

1 학교협동조합으로 실천하는 교육 1

❖ 환경교육(되살림 교육)

- 에코옷장

졸업생들의 교복을 구입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신입생이나 재학생에게 판매하는 교복 재활용 사업이다. 에코옷장의 장점은 매점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연중 교복 장터가 열린다는 점과 주변 학교의 교복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 세상을 바꾸는 마개 2g 운동

생수 마개를 모아서 판매한 금액에 생협('생활협동조합'의 준말로, 생산자로부터 직접 친환경적인 생활 물자를 적정한 가격에 살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기금을 더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정수 시설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 캔모아 축구공 프로젝트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캔을 모아 판매한 금액으로 축구공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재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판매 수익금으로 학생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 바른 먹거리 교육 및 윤리적 소비 교육

- 바른 먹거리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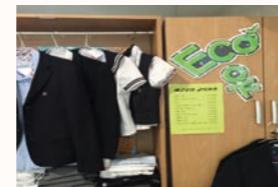
식품첨가물의 종류, 발색제 및 보존제 알아보기, 영양성분 살펴보기, 유통기한 확인 등 바른 먹거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 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일반 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차이를 알게 되고 바른 소비활동으로도 연결된다.

- 윤리적 소비 교육

나의 소비 행위가 사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움으로써 지나친 과소비와 충동구매, 잦은 핸드폰 교체 등의 문제에 대해 알게 된다.

- 공정무역 캠페인 및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정무역에 대해 배운 후에 캠페인과 함께 공정무역 초콜릿을 판매함으로써 전교생에게 공정무역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협동조합 수익금으로 일반 초콜릿과 공정무역 초콜릿의 차액만큼을 지원해 주어 많은 학생들이 공정무역 초콜릿을 맛봄으로써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 학교협동조합으로 실천하는 교육 2

❖ S고등학교의 1일 창업대회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재능으로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1일 창업가가 되어보는 것이다. 1일 창업대회에 불과하지만 내가 만든 물건이 어떤 이유로 잘 팔리고 안 팔리는지 경험해 봄으로써 기업가정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된다.



❖ D고등학교의 시장 조사

매점에서 판매할 문구 및 빵 종류를 시장 조사를 통해 결정하고 가격도 조합원인 학생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게 된다. 조합원으로서 주인임과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게 팔거나 싸게 파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을 해봄으로써 기업가 정신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된다.



❖ S고등학교의 재능 기부 '아트페어'

학생들의 재능으로 만든 미술작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미술재료를 지원하고 미술 교육을 실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미술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고 한국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3 현장 탐방으로 배우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배우기 위해 현장을 탐방하는 것은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몇 곳만 소개하고자 한다.

❖ 홍동마을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동마을은 유기농업 단지로 유명한 곳이며 지역재생과 자립을 꿈꾸는 공동체 마을로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이 곳에 가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를 볼 수 있다.



❖ 원주

강원도 원주는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발생지라 할 수 있으며 '한살림'의 발원지로 유명하다. 원주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밝음의원'과 신용협동조합인 '밝음신협'을 비롯해 다양한 협동조합을 볼 수 있다.

❖ 구례 자연드림파크

농촌을 활성화하고 조합원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목표 하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로 아이쿱 생협 조합원을 위해 만든 복합문화단지라고 할 수 있다.



❖ 성미산마을 및 삼각산 재미난 마을

어린이집, 생협, 카페, 학교, 마을극장 등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며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과 어린이 도서관, 카페, 극단, 어린이집 등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며 마을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강북구의 삼각산 재미난 마을도 탐방하기에 좋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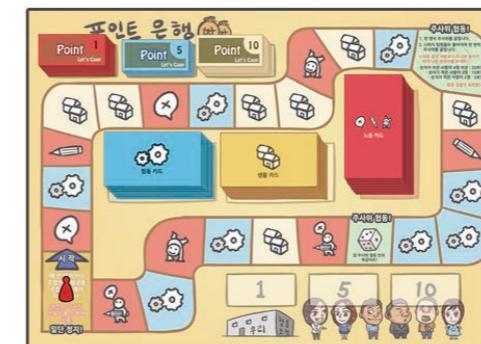


1

학습활동

렛츠쿱 게임으로 협동조합 알아보기

렛츠쿱 게임



게임말 1개, 보드게임판, 노동카드, 협동카드, 생활카드, 포인트



캐릭터 카드 6장



모래시계 1개



주사위 1개



메모장과 펜

❖ 게임 구성품

게임말 1개, 보드게임판, 노동카드, 협동카드, 생활카드, 포인트, 모래시계 1개, 주사위 1개, 캐릭터 카드 6장 (그 외 메모장과 펜 별도 준비)

❖ 게임 순서

- 1 게임판 위에 포인트 및 카드들을 올려놓고 게임말 1개를 시작 위치에 놓습니다.
- 2 플레이어들은 캐릭터카드를 나눠 갖습니다. 최소 3인~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남는 카드는 치우고 시작합니다.
- 3 각자 캐릭터 카드에는 시작 자산이 적혀있습니다. 시작 자산만큼 포인트를 은행에서 받습니다.
- 4 은행에서 받은 포인트는 자신의 금고 위에 올려놓습니다.
- 5 게임을 시작하려면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금고에 각각 20포인트씩 출자를 해야 합니다. 게임판 위의 조합 금고에 모두 20포인트씩 자신의 자산에서 출자했다면 주사위를 굴려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6 한 명씩 돌아가며 주사위를 굴리고 각 칸에 이동하게 되면 그 해당 칸의 카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해당 차례에 주사위를 던졌던 사람이 카드를 개봉하고 읽습니다. 단 노동카드에 걸렸을 때는 남들이 보지 못하게 혼자만 카드의 내용을 봅니다. 붉은색 칸에 걸렸을 때가 노동카드를 볼 때입니다.

❖ 게임과 관련된 더 자세한 설명은 제품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actus1004>

12

마을기업의 이해

학습목표

- ① 마을기업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② 마을기업의 특징과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마을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 행정구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Mission

우리 마을에서 운영되는 마을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마을기업의 의미

마을기업이란 정부가 추진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의 사업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마을기업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마을기업은 지역별 특성, 주민 공동체의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협동조합과는 차이가 있다. 마을기업의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지역성

주체의 구성은 지역 주민이며 지역의 자원에 기반을 둔다.

공동체의 요구에 기반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수요 공급의 조절 등 지역 공동체의 요구에 기반을 둔다.

운영 정체성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 방식의 민주성, 분배의 공정성에 기반을 둔다.

지속 가능성

운영의 과정에서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의 발전, 지역 지원의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활성화 방안

이윤 추구보다 사람과 지역 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의 지역 지원 활성화와 기회의 불균형 해결을 지원한다.

생존 전략

지역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호적인 관계망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2 마을기업의 특징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이다.

마을기업은 반드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나 해결 과제를 다루어야 한다. 또 사업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안정화 이후에는 마을기업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



- 마을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가?
- 지역 주민 및 단체와 협동적 관계망이 있는가?
-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가?
- 협동조합적 운영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가?
- 조합원 구성과 출자금 등 자립 기반이 있는가?
- 이용과 판매 등 사업체로서 수익 구조를 갖추었는가?

3 마을기업의 요건

마을기업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

구 분	세부 내용
마을기업 추진 주체의 지역 공동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의 형태로서 최소 5인 이상의 지역 주민 참여 – 출자자의 구성은 지역 주민이 70% 이상이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 지분의 합이 50%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함.
마을기업의 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은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수익 사업이 지역 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 고용 인력의 70% 이상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
마을기업의 공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 지역 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 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1 학습활동

마을기업 설립하기

▣ 모둠을 구성하여 마을기업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마을기업을 설립해 보자.



마을기업의 구성

- 마을
- 마을 주민
- 지역의 각종 지원

모둠 구성하기

모둠원 :

마을기업 사업 분야 조사하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 분야를 선정한다.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나 해결을 요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까?
- 마을에서 기업을 만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
-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지역의 상인들과 충돌하지 않는 수익 사업은 무엇일까?

마을기업 사업 분야 선택하기

교육, 돌봄, 먹거리, 문화 예술, 서비스, 자원 순환, 제조, 카페 등

마을기업 사업 품목



마을기업 이름 짓기

우리 모둠이 마을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 SNS에 마을기업 카페 만들고 회원 모집하기

-
-
-

마을기업 홍보 방법 찾아보기

우리가 만든 마을기업은 우리 마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
-

서울시의 마을기업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50개의 '일자리 카페'를 마련한다. 스터디 룸, 정보 검색대 등을 갖추고 면접용 정장 대여, 메이크업·헤어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는 공간이다. 동주민센터, 마을 카페 등에 주로 조성되며 2020년에는 300개까지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기업은 114개이다. 이들은 교육, 돌봄, 먹거리, 문화 예술, 서비스, 자원 순환, 제조, 카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중이다. 이러한 마을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 2015 서울시 마을기업 백서 (<http://www.hankookilbo.com/v/d4277dd5053405cb8fd99dc0ddc73cd>)

마을기업의 유형과 사례

13

학습목표

마을기업의 유형과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마을기업이 뜨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기업이 뜨고 있다. 마을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동영상 | 마을기업이 뜨다.



Mission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기업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마을기업의 유형

마을기업의 유형은 목적과 수단에 따라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품·자연자원 활용 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공공 부문 위탁 사업, 자원 재활용 사업, 녹색 에너지 실천 사업,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지역 관광, 농촌 체험, 전통 공예 등 지역 자원 및 특화 브랜드를 개발 및 홍보하는 사업.



전통 시장·상가 활성화사업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 혹은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상권을 복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공공 부문 위탁사업

지역 축제, 공원 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 급식 등의 사업이 지역 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



자원 재활용사업

음식 쓰레기, 헌 옷, 폐금속, 폐식용유 또는 각종 중고 물품 등을 재활용 하는 친환경 녹색 사업.



녹색 에너지 실천사업

자연 생태 관광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업.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역 내 전통 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업.



1 학습활동

우리동네 마을기업 홍보 활동 해 보기

우리 동네 마을기업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고 모둠별로 홍보물을 만들어 보자.

모둠 구성 하기

마을기업 홍보를 위한 모둠 구성

팀장 : 리포터 :
작가 : 디자이너 :
홍보 사원(발표자) :

마을기업 선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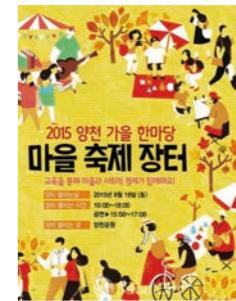
마을기업명 :
망령기업 대표자 :
주요 사업 내용 :

마을기업 인터뷰

인터뷰 내용

1. 마을기업 설립 동기
2. 마을기업의 목표
3. 마을기업의 주요 고객
4. 마을기업의 운영상의 어려운 점
5. 발전 전망

포스터 만들기



홍보물 만들기

발표자가 마을기업의 홍보 사원이 되어 제작한 홍보물을 가지고 다른 모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업을 홍보한다.

마을기업 사례

1. 협동조합성북 ○○

협동조합성북○○는 지역을 신나게 하는 작은 연구소로서, 정릉동 지역 재생과 건강한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획, 연구, 교육, 디자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마을기업이다. 성북문화재단에서 청년 인턴을 해 왔던 친구들과 성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청년들이 모였으며, 2014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협동조합성북 ○○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역 자원과 성북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문화 기획과 연구를 진행하고, 출판이나 디자인 등의 문화 콘텐츠 제작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일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성북○○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마을 여행, 마을 학교, 마을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성북○○는 정릉동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을 정릉동을 바탕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먼저, 마을학교는 마을에서 배운다는 관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이다. 지역의 청소년들과 동네 안에서 잘 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민주주의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한다.

2. 어슬렁 ○○○ 마을기업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혼자서 삶을 꾸려가는 일은 정서적으로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이유에서 ○○○ 협동조합은 여성 1인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시작되었다. ○○○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어슬렁○○○은 건강한 마실거리와 먹거리를 추구하는 카페 겸 식당 공간이다. 또 여성 1인 가구들을 포함한 세대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글쓰기, 아카데미, 드로잉 등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심리 검사와 상담도 가능하다.



3. 이야기가 있는 ○○○

이야기가 있는 ○○○은 □□복지관의 발달 장애 자녀 부모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성인 발달 장애 자녀들의 돌봄 지원 문제, 외별이 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공유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마을에서 일하고 배우는 마을기업을 준비하였다. 마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을 카페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발달 장애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할 곳이 없다는 현실에 아이들의 직업과 엄마들의 일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카페와 네프킨 공예 공방을 구상하여 카페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카페 공간의 일부는 공방으로 활용 중이다.



4. 건강한 ○○○협동조합

건강한○○○협동조합은 금천구의 친환경 주말농장, 도시농업지도사 교육을 수료했던 주민들이 모여 결정한 마을기업이다. 도시 농업을 통하여 농업의 가치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나눔 텃밭 보급, 자원 재활용 텃밭 보급과 토종 종자 보급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건강한○○○는 주로 배드 텃밭과 재활용 텃밭 상품을 판매하고 텃밭 경작 관리도 하고 있다. 도시의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조성해 주고 이후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도 공급하고 있다. 목공소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 어떠한 공간이라도 그곳에 맞게 텃밭을 설계하고 설치할 수 있다. 또 조합원들이 모두 도시농업지도사,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오랫동안 도시 농업을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인 강좌부터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생태 텃밭 교육을 진행하고 주말 농사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시 마을기업 1056일의 기록, 2015 서울시 마을기업 백서 2015. 8. 1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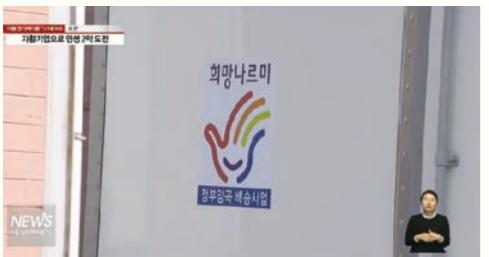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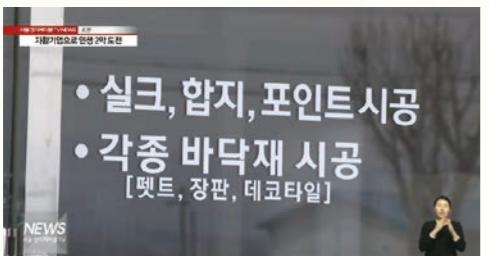
자활기업의 이해

학습목표

- ① 자활기업의 의미와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 ② 자활 기업의 사례를 통해 자활 사업의 성격과 자활 근로 사업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자활기업!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기업이 지역에 있는 자활 기업이다.



동영상 | 자활기업으로 인생 2막 도전



Mission

- ① 자활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② 자활기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1 자활과 자활기업의 의미

자활이란 '제 힘으로 살아감'이란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회 정책으로서의 자활은 실직 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 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또는 창업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활기업은 근로 의욕이 있는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조합이나 공동 사업자를 만들어 빈곤을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하였다.

2 자활기업의 범위

- 1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빈곤 탈출을 위해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자활 사업으로 시작된 기업 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많고 때로는 이렇게 자활 사업에 뿌리를 둔 기업을 모두 자활기업으로 부르기도 한다.

3 자활 사업의 성격

사회·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일정한 사업을 지원한다. 이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주민과 함께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소외 계층과 지역 주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4 자활과 자활기업의 의미

자활 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자활 근로 사업은 기존의 공공 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해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자활 근로 사업은 주로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 재활용·음식물 재활용 사업을 5대 전국 표준화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되 영농·도시락·세차·환경 정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 양곡 배송 사업, 영양 플러스, 장애 통합 교육 보조원, 사회 취약 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이 있다.



사례읽기

서울시 성북구 자전거 재활용 사업단 '달리마'

◆ 협동조합성북 ○○

◆ 주요 사업

- 자전거 재생 및 기증 사업 성북구 및 인근 지역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거나 기증된 자전거를 재생하여 저소득층 주민,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에 기증한다.
- 자전거 이동 수리 사업 동 주민센터, 아파트 및 자전거가 많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전거 전문 인력 양성 및 자전거 기초 강습 저소득층 및 재활을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비 일반 과정(생활자전거), 고급 과정(산악 자전거)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기초 강습을 실시한다.



출처 | 보도뉴스 (http://www.bodonews.com/sub_read.html?uid=27532)



학습활동

1 자활을 실현해 주는 희망키움통장 알아보기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의 차이는 무엇인지 적어보자.

❖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이란?

저소득층이 모든 마련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자활을 꿈꾸는 대상자가 근로 활동을 하면서 번 돈으로 매월 10만 원씩 36개월 동안 저축을 할 경우, 정부가 매월 30만원씩,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57만원까지 추가로 금액을 보태서 저축을 해 주는 사업이다. 만약 36개월 이내 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금을 전액 지급한다.



❖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이란?

근로빈곤층이 다시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사업이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매월 10만 원 저축을 유지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특징 :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저축액에 1:1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한다.

목적의 차이

지원금의 차이



학습활동

2 주변의 자활기업 사례를 찾아 정리해 보자

자활기업의 명칭

자활기업 유형

자활기업의 활동 사례

새로운 자활 사업 찾아보기

15 공정무역의 이해

15

학습목표

- ① 공정무역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② 공정무역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축구공으로 본 공정무역 경제학

공정한 무역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공정무역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 개발도상국들의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한 공정무역 상품을 소비하자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동영상 | 축구공 경제학



Mission

공정무역을 통한 상품을 이용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1 공정무역의 개념

공정무역의 시작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국제사회의 시민운동이다. 공정무역은 1940년대 미국의 시민단체 주도로 시작하여 1950년대 후반 영국의 비정부조직인 옥스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시민 운동의 일환으로 공정무역 조직과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빈곤한 나라의 가난한 농부와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환경친화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교육 훈련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였다.

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정한 값을 주고 사들여 판매하면서 공정무역은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공정무역의 의의

공정무역은 '생산자들이 생산원가와 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즉, 경제 발전 수준이 낮고 생활 수준이 빈곤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원재료를 수입할 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자는 것이다. 또 중간 상인 이윤을 줄여 구매자 입장에서도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공정무역은 가난한 나라에 대한 무상의 원조가 아니라 상품을 사고파는 무역이다. 공정무역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의 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주로, 약자인 이들에게 지속적인 생산을 보장해 주는 최저 가격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공정무역의 목적

공정무역은 무역 거래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거래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 및 유통 종사자들을 존중하며, 국제 무역에서의 공정성을 더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경쟁에서 뒤처진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무역 조건들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정무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생산 지역 또는 현지 사정에 맞는 공정한 가격을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합의할 수 있을까?
 - 생산원가뿐만 아니라 생산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생산자에게 공정한 급료를 제공하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은 노동에 똑같은 급료를 지불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
 - 생산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계공정무역기구(WFTO)의 공정무역 10원칙

공정무역은 무역 거래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거래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 및 유통 종사자들을 존중하며, 국제 무역에서의 공정성을 더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경쟁에서 뒤처진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무역 조건들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공정한 가격 지불

차별 금지, 성 평등, 결사의 자유 보장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

투명성과 책무성



공정한 무역 관행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양호한 노동 조건 보장

공정무역 홍보

환경 존중

출처 | WFTO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2 공정무역의 특징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창출

소득이 높은 국가와 소득이 낮은 국가 간의 교역에서는 전통적인 무역 관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무역은 상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당사자들 간의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로 인하여 경쟁에서 밀려난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 일반 커피

▲ 공정무역 커피

생산자의 역량 강화

공정무역은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저소득 생산자들에게 지역 사정에 맞는 공정한 가격을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합의함으로써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또 새로운 생산 기술의 교육과 생산된 물품의 유통 과정 효율화를 통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공정무역은 모두에게 동일한 대우와 급료를 지불하는 등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실현하여 그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증대시킨다.

인권 보호

공정무역은 모든 남성과 여성, 아동, 노인의 노동에서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는 그들이 기여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지불 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무역은 열악한 생산 환경으로부터 생산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복지, 교육 활동 등을 제공한다.

환경 보호

공정무역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더 나은 생산 방법을 제공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한다.



동영상 | Fair Trade
- You Can Change (공정무역 Infographic)

‘커피 한 잔의 이야기’ 동영상을 보고 공정무역 이해하기

‘커피 한 잔의 이야기’ 동영상을 보고 공정무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 여러분이 마시는 원두커피 한 잔!

5,000원에 가까운 원두커피 한 잔 속에 담겨 있는 생산자의 노동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원두커피 한 잔을 5,000원 정도 지불하고 마셨을 때, 커피를 생산하는 농가의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300원 정도로 나머지는 중간상, 가공업자, 유통업자들에게 나눠진다. 따라서 판매액 대비 증간상, 가공업자, 유통업자들의 이익을 조금 줄여 생산자가 받게 될 이익을 조금 높이기만 해도 생산자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동영상 | 커피 한 잔의 이야기



❖ 전 세계에서 커피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 전 세계에서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은 어느 정도일까?

❖ 어떻게 하면 커피 생산자들이 이익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까?

각 모둠별로 정리한 공정무역의 내용에 대해 서로 비교해 보고, 공정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토의해 보자.

공정무역의 우선 해결과제 선정하기

‘커피 한 잔의 이야기’ 동영상을 보고 공정무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디자인의 의미 :



현실에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무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 보자.

부모님 생신 선물로 공정무역 마크가 새겨진 커피를 구입하여 선물한다.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

토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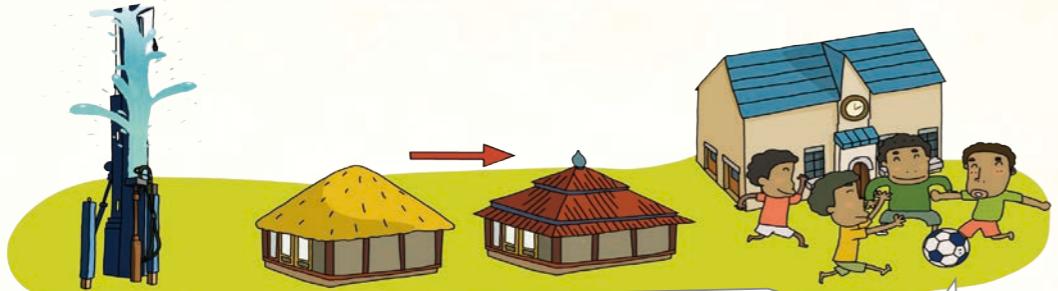
16

공정무역의 사례와 실천

학습목표

- ① 공정무역의 사례와 실천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을 위한 펌프, 새로 수리한 지붕,
학교에 다니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
단순한 변화이지만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필리핀에 망고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망고를 땀는 시간보다
책을 읽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망고를 제 가격에 팔 수 있어 아이들이
더는 일을 돋지 않아도 되거든요.
필리핀의 민족나오 섬 망고 생산 농부 주니또 씨는 공정무역을
통해 아이들에게 놀고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Mission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 공정무역을 통한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공정무역 제품 사례

공정무역 커피

커피는 세계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음료이지만, 커피 생산국들이 모두 부자가 되지는 않았다. 중간매입상과 다국적 기업들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우간다산 커피를 예로 들었을 때, 실제로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0.5%로 즉 5,000천원짜리 커피를 마시면 25원정도의 돈도 노동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무역 초콜릿

초콜릿 역시 대표적인 공정무역이 필요한 제품 중 하나인데, 초콜릿의 경우 아이들이 카카오 열매를 따는 모습은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 아이들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막 학교에 다닐 나이의 아이들 이지만, 노동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공정무역 화장품

그밖에도 다양한 화장품의 재료 또한 마찬가지이다. 화장품 추출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공정 무역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생산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공정무역은 꼭 필요하다.

‘생산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심과 제값 치르기를 통해 건전한 노동과 생산주체의 저력을 키우는 일, 공정무역은 단순히 노동자 한 사람의 행복이 아닌 모두가 건강해지는 일이다.

2 공정무역의 실천

일상에서 공정무역 운동 실천하기

누구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무역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쇼핑을 할 때 공정무역 인증상품을 고르고, 상점 내 선반 위에 공정무역 인증상품이 진열되지 않았다면 상점에 문의한다. 또한 친구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해 알리고, 공정무역 인증상품을 사무실, 학교 등에 들여놓고 사용함으로써 공정무역 운동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더 나아가 공정무역 타운을 만든다!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

공정무역 제품도 무턱대고 구입하기보다는 생산 환경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합의된 공정한 최저가격과 공정무역 공동체 발전 기금을 보장하고, 아동 노동 강제 노동 금지, 차별 금지 및 결사의 자유 보장, 투명하고 장기적인 거래 파트너십, 생산지 환경과 생산자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생산 방식 등 공정거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일일이 확인하기 귀찮다면, 한국공정무역단체 협의회 소속 공정무역 단체 제품을 이용하자. 지난 2012년 발족한 한국공정무역단체 협의회에는 현재 아름다운커피, 기아대책 행복한나눔(비마이프렌드), 두레생협 APnet, 아시아공정무역 네트워크, 아이쿱생협,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한국 YMCA 피스커피, 더페어스토리, 어스맨, 얼굴 없는 거래등 10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단체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생산지 이야기를 전하며, 공정무역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두레생협 등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 생협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전국 공정무역 판매처 알아보기(구글) <https://goo.gl/AbmLaQ>

공정무역의 나라별 교역 상품 찾아보기

1. 공정무역의 나라별 교역 상품을 조사해 보자.

- ◆ 공정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주요 생산 국가와 소비 국가를 다음 지도에 표시해 보자.



- ◆ 공정무역에서 주로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을 조사해 보자.

- ◆ 상품이 주로 생산되는 국가(또는 지역)는 어디인가?

- ◆ 상품이 주로 소비되는 국가(또는 지역)는 어디인가?

- ◆ 공정무역이 이루어지는 생산 국가의 생산자와 소비 국가의 소비자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사례일기

영국의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Oxfam)은 1960년대 초에 제3세계 생산자들의 공예품을 수입하면서 공정무역을 시작했다. 옥스팜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하나둘씩 소규모로 공정무역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 들어서, 네덜란드의 프란스 판 데어 호프(Frans van der Hoff) 신부는 멕시코 농가의 빈곤을 돋다가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는 원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우리 커피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삶은 나아질 것이다.”라는 멕시코 농민의 말에 공감하면서 멕시코 농가들과 손을 잡고 UCIRI라는 커피협동조합을 설립했다.

1980년대에 네덜란드의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 재단은 커피를 비롯해 바나나, 꽃과 같은 다른 농산물에도 공정무역을 인증하는 막스 하벨라르 라벨을 부착하기 시작했다. 막스 하벨라르는 공정무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발전했고, 제조·유통 업체들과 연계해 대규모의 공정무역 운동을 펼쳤다.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공정무역을 세계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97년 공정무역 인증기구인 FLO 인터내셔널(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 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이 설립됐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정무역 라벨이 서로 달라 소비자들의 눈에 띄기 어려웠는데, 이 조직이 설립되면서 통일된 라벨을 만들었고, 이는 공정무역 확산에 박차를 가했다.

이제 우리 주위 여기저기서 공정무역 라벨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패션 기업인 막스앤스페서 매장이나 미국의 훌푸드마켓 매장에 가면 공정무역 라벨이 붙은 상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매장의 원두커피 팩에도 공정무역 라벨이 붙여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카페데베르 커피숍에서 공정무역 커피와 초콜릿을 볼 수 있고, 한국공정무역연합의 공정무역 가게인 올림(fairtradekorea.com)에 가면 초콜릿, 커피, 시리얼 바는 물론이고 공정무역 축구공도 살 수 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2를 코트디부아르 같은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채취하는데, 이들 국가는 아동들을 노동 인원으로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 2009년 들어 서아프리카 아동 착취에 대한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밸런타인데이에는 올림에 공정무역 초콜릿 주문이 쇄도하기도 했다. 생두 커피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같은 동부 아프리카를 비롯해 중남미,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커피 생산 농가들이 원두 가격의 하락이나 비공정무역의 영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까? 이들은 수입이 안 되는 커피보다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마약 같은 환금성 농작물을 생산해 수입을 채운다. 물론 이 마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으로 들어와 우리의 영혼과 사회를 갉아먹는다. 이는 우리가 공정무역 커피를 사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출처 |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 법칙 101 / 2011. 2. 28., 위즈덤하우스

17

공유경제의 이해와 사례

학습목표

- ① 공유경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② 공유경제의 사례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유경제 – 마을의 공동 상여

장례문화의 변화로 지금은 상여를 이용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기 전 까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사용하는 상여는 마을의 소유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보관하고 공동으로 사용했다. 마을에서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상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공유경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상여를 보관하는 상여집



▲ 상여집에 보관하는 상여

Mission

우리나라에서는 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가 발생한 다음 해인 1998년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의미의 아나바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런 아나바다 운동과 벼룩시장은 공유경제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공유경제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1 공유경제란?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 경험, 지식 등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빌려주고 빌려 쓰거나 교환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이 상호편익과 이윤을 얻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즉 남는 자원에 대한 사용 가치를 최대로 높이는 경제 활동을 뜻하는데, 생산된 제품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공유하고 사용해서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는 협업 소비가 핵심이다. 집이나 차량, 자전거, 옷, 책 등 소유한 재산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공동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유경제의 이해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저성장, 가계소득 저하, 취업난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생기면서 공유경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SNS나 인터넷과 같은 IT기술의 발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IT기술은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출처 | 구글 검색 (<http://mbanote2.lolli.com/160>)

공유경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을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에 도움을 준다. 개인 간 거래의 안전 문제, 품질 보장의 문제, 결제 시스템 미흡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공유경제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는 물건뿐만 아니라 공간, 재능, 정보, 지식을 공유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는데 앞으로는 더 광범위하게 발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버

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자동차가 고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개인 기사 서비스

에어비앤비

전 세계의 호스트가 숙소를 올리면 각국의 여행객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숙소를 찾아 예약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

3 국내 공유경제의 사례

열린옷장(THE OPEN CLOSET)

열린옷장은 정장을 대여해 주는 곳으로 일반 정장 대여점과 달리 대여비가 1/3 가격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옷마다 기증자의 사연이 담겨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장을 처음 입어보는 대학생의 주머니 걱정을 덜어주고, 갑작스러운 면접 통보를 받은 청년의 정장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 지금은 천벌의 옷을 갖추어 매월 2천여 명의 사람이 정장을 빌리기 위해 찾는 곳이 되었다. 열린옷장은 옷장 속 정장과 이야기를 기증받아 정장이 꼭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옷장이다.



기증자 메시지

제 옷장 속의 정장이 누군가에게 쓰여져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정장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분들! 이 정장 입고 어깨 쭉~펴고 면접 잘 보아서 원하시는 취업의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대여자 메시지

오늘 정장을 입고 언론사 면접을 보았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입는 양복의 느낌을 잊지 않고 언제나 불편한 장소를 찾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는 삶이 온전히 제 몫이 아니기에 그 빛을 갚기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쏘카(SO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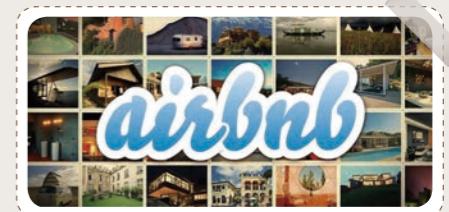
쏘카는 자동차 공유를 통해 전체 자동차 대수를 줄임으로써 환경 공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회사이다. 렌터카와 달리 모바일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고 10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해 경제적이며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키로 차량의 문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어 편리하다. 전국의 지역마다 쏘카존이 여러 곳 갖추어져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이용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 개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던 자동차였는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를 공유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공해를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3 해외 공유경제의 사례

에어비앤비(Airbnb)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에 창립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로 온라인 및 모바일, 태블릿을 이용해 전 세계의 호스트가 숙소를 올리면 각국의 여행객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숙소를 찾아 예약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세계 191개국 34,000개 도시에서 아파트, 성, 빌라 등 다양한 가격대의 숙소가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숙소가 호텔과 다른 점은 그 나라 사람의 방이나 집을 빌림으로써 현지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고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여행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들은 집안의 남는 공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자신의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다.

태스크래빗(TASKRABBIT) 단기 일자리 중개 사이트

태스크래빗은 임시로 일을 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단기 일자리 중개 사이트다. 사용하지 않는 노동력, 지식 등을 나눠 쓰는 것으로 공유경제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설립된 후 태스크래빗에서 활동하는 3만 명의 회원들은 집안일, 수리, 사무, 쇼핑 대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자는 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공급자는 남는 시간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 대학생, 수리공, 은퇴자, 주부 등 유동 인력이 원하는 시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다.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남는 시간을 활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태스크래빗을 찾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유기업 체험하기

모둠별로 공유기업을 만들어 보자.

- 학교 안이나 사회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찾아 가상으로 공유기업을 만들고 공유기업 카드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써보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자.

예 1
신사중학교 사례



- 각 모둠에서 만든 공유기업 카드에 대해 모둠별로 발표하고 사례를 공유해 보자.

모둠별로 진행할 경우에는 모둠원이 함께 전지에 쓰도록 안내하고, 개인별로 진행할 경우에는 종이를 잘라 나눠준 후에 각자 쓰도록 안내한다.

부록

고등학교 사회적경제 워크북
공감 익히기 추가 활동
창조적 기업가정신 설계하기

학습내용

- 1 공감을 통한 융합과 창조
- 2 하트 브랜딩



1 공감 받을 때보다 공감할 때 더 커지는 공감 능력

공동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동체 안에서 공감의 능력은 향상된다. 공감 능력이 커지려면 구성원들 간에 충분히 감정을 나누어야 하므로 공동체의 구성 인원은 3~12명 정도가 적당하다.

공동체 전체가 한 개인에 공감하며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개인이 공동체 구성원들에 각각 공감할 때 공감의 능력은 향상된다. 구성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공감을 받는 횟수보다 공감을 하는 횟수가 증가하여 공감의 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구성원의 수가 10명이라면 각 개인은 9명의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1번의 공감을 받는다. 반면, 공동체 각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9번의 공감을 해 주어야 한다.

공감의 능력은 공감을 받을 때보다 공감을 해 줄 때 더 커지게 된다. 공감의 능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지게 되고, 공감할수록 자신의 행복감과 공동체의 행복감이 모두 커지게 된다.



2 공동체(그룹) 전체로부터 공감 받을 때 더 커지는 공감 능력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고 공감할 때 공감을 받는 사람은 우물물을 펴 올리기 위해 마중물을 넣는 것처럼 공감의 능력을 공동체 전체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리고 마중물을 넣은 이후에 펌프질을 하면 우물물을 쉽게 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공감을 전체로부터 받고 전체와 함께 공감하게 되면 공감의 행복감과 공감의 능력이 커지게 된다.

3 공감을 통한 융합과 창조 역량 기르기

공감의 능력이 커질수록 공동체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자유롭게 발생한 아이디어들은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과 충돌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충돌할 때 함께 발생되는 감정 충돌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아이디어들을 융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가 속한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아이디어의 충돌과 융합의 과정에서도 공감의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룹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준비 단계

1

숫자를 적을 수 있는 종이를 충분히 준비한다.

3명인 경우: 빈 카드 15장 이상

2

모인 사람들을 3~12명의 범위에서 원하는 숫자의 구성원 수를 정하고 묶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아래의 예시는 3명으로 한다)

3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기쁨, 슬픔 등 같은 감정을 주제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나 상황에 따라 감정이 아닌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팀 내에서 소통하기 위한 멤버들의 별명을 정하고 팀원들끼리 자신의 별명을 소개하며 간단히 인사한다.

4

참가자 A, B, C는 준비된 종이에 숫자 1을 적고 대화를 시작한다.

5

전체 시간을 계산해서 한 사람당 2~5분 이야기할 시간을 정한다.

A = 1
B = 1
C = 1

대화와 공감 단계

6

A가 대화를 시작한다. A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얘기하고 B와 C는 공감하며 경청한다.

7

B와 C는 경청 후에 자신이 가진 1이라는 숫자 범위에서 공감하는 감정의 크기를 2장의 종이에 같이 적는다.
(예를 들면 0~1사이의 숫자가 가능하다)

A = 1
B = 1 + 1 + 1
C = 1 + 1 + 1

8

B와 C는 적은 종이를 먼저 자신이 한장을 가지고, 나머지 한장을 A에게 준다. 그래서 A는 2장을 받게 된다.

A = 1 + 1 + 1
B = 1 + 1
C = 1 + 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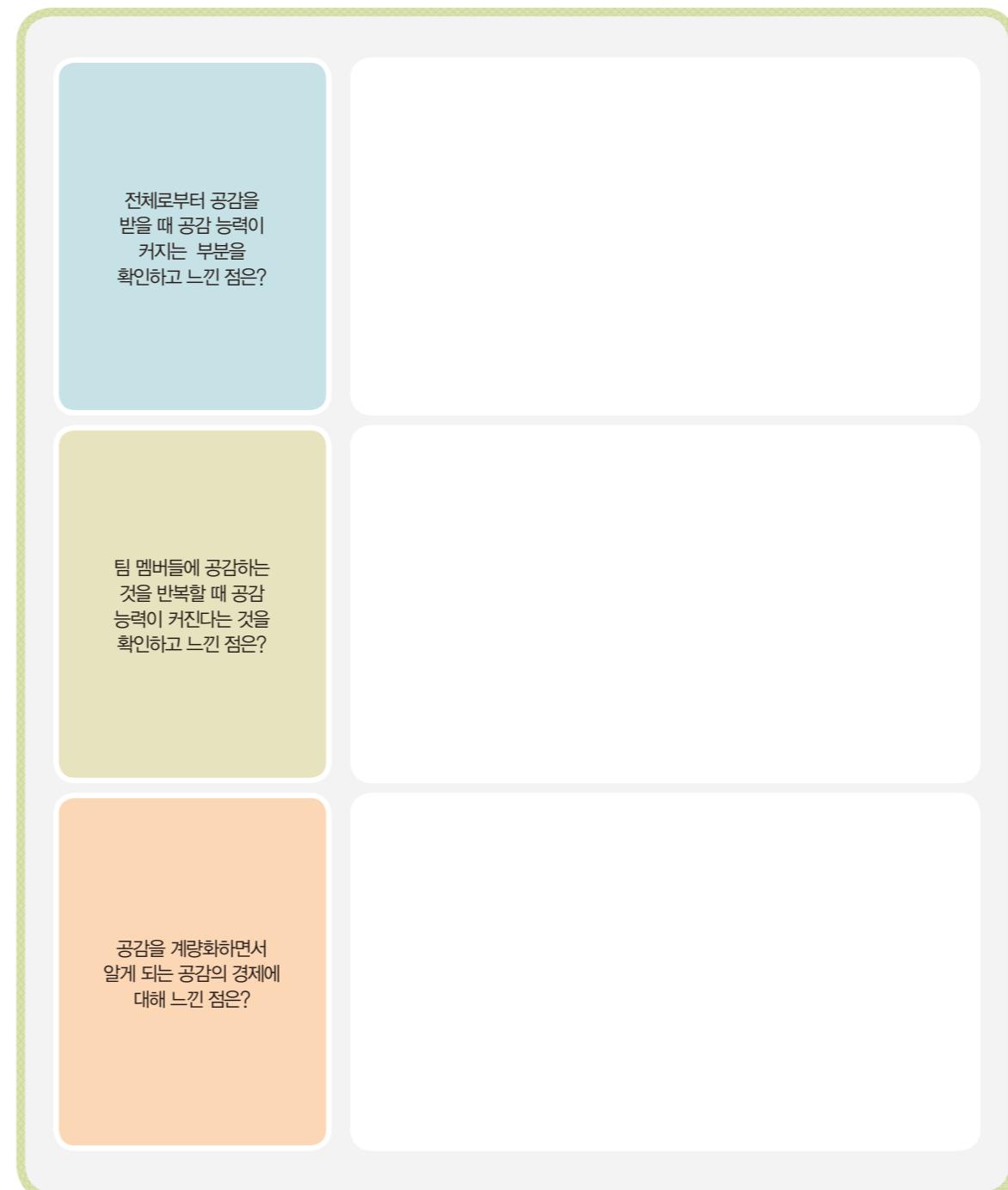
이번에는 B가 이야기하고, A와 C가 공감하며 경청한다.

A = 1 + 1 + 1 + 3 + 3

발표자는 수행 후에 느낀 점을 적어 발표하고, 듣는 사람은 발표 내용에 공감한다.

대화와 공감 단계

10 단계	A와 C는 경청 후에 자신이 가진 숫자의 합의 범위 내에서 공감하는 감정의 크기를 2장의 종이에 같이 적는다. (예를 들어 A가 가진 숫자의 합이 30이라면 0~3 사이의 숫자가 가능하고, C가 가진 숫자의 합이 2라면 0~2사이의 숫자가 가능하다)	B = C =
11 단계	A와 C는 적은 종이를 먼저 자신이 한장을 가지고, B에게 나머지 한장을 준다. 그래서 B는 2장을 받게 된다.	A = B = C =
12 단계	이번에는 C가 이야기하고, A와 B가 공감하며 경청한다.	
13 단계	A와 B는 경청 후에 자신이 가진 숫자의 합의 범위 내에서 공감하는 감정의 크기를 2장의 종이에 같이 적는다. (예를 들어 A가 가진 숫자의 합이 60이라면 0~6 사이의 숫자가 가능하고, B가 가진 숫자의 합이 70이라면 0~7 사이의 숫자가 가능하다)	A = B = C =
14 단계	A와 B는 적은 종이를 먼저 자신이 한장을 가지고, C에게 나머지 한장을 준다. 그래서 C는 2장을 받게 된다.	A = B = C =
15 단계	그룹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받는 숫자가 커지고 자신이 주는 숫자가 커진다.	A = 12 (최대치) B = 14 (최대치) C = 17 (최대치)



그룹의 지지를 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말하며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융합해 보자.

준비 단계

1 단계 숫자를 적을 수 있는 종이를 충분히 준비한다. 빈 카드 15장 이상

2 단계 ① 팀 단위로 하나의 충분히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융합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주제를 정한다.
② 가능한 한 성향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3~12명 단위의 팀으로 구성한다.
③ 원하는 숫자의 구성원 수를 정하고 둑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아래의 예시는 3명으로 한다)

3 단계 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기쁨, 슬픔 등 같은 감정을 주제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나 상황에 따라 감정이 아닌 주제를 선택할 수 있음)
② 별명을 정하고 팀원들끼리 자신의 별명을 소개하며 간단히 인사한다.

4 단계 참가자들이 준비된 종이에 숫자 1을 적어 가진다.

$$\begin{array}{l} A = 1 \\ B = 1 \\ C = 1 \end{array}$$

5 단계 ① 전체 시간을 계산해서 한 사람당 2~5분 이야기할 시간을 정한다.
② 돌아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말해도 되고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해도 되지만 동일 시간 동안 주장할 수 있다.

토론과 공감 단계

6 단계 A가 B, C와 자신의 의견을 토론한다. A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얘기하고 B와 C는 공감하며 경청한다.

7 단계 1차적 공감 단계 : 경청자 B와 C는 A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공감을 하면서 듣는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공감의 행복이 창조되는지 확인한다. 이 단계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가 약속을 지키고 A의 주장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공감해야 한다.

8 단계

2차적 공감 단계 : 1차적 공감을 확인한 경청자 B와 C는 2차적인 공감 단계에 들어간다. 2차적인 공감 단계는 감정의 단계를 넘어 지성적으로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단계이다.

공감에 의해 창조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토론자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융합하는 것을 시도한다. 긍정적인 반응이 4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① B와 C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토론자 A의 아이디어가 융합되는 창조적인 방안이 떠오르며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 ② 토론을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보다 토론자 A의 의견이 더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 ③ 토론자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 ④ 토론자와 의견이 같아서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9 단계

경청자 B와 C는 자신의 반응을 8단계에서 확인하고 수치화한다.
8-①번처럼 융합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숫자들을 합친 숫자의 3배의 범위 안에서 공감하는 감정의 크기를 숫자로 정한다.

8-②번과 8-③번의 경우는 2배의 범위 안에서 공감하는 감정의 크기를 숫자로 정한다.

8-④번의 경우는 1배의 범위 안에서 공감하는 감정의 크기를 숫자로 정한다.

그리고 경청자는 그 숫자를 2장의 종이에 적는다.

경청자 중 8단계의 8-①번처럼 융합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경청자는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짧게 말하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이고 짧은 피드백을 한다

* B는 A의 토론을 듣고 공감해서 8-①의 경우, 즉 융합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 B = 1 + 3 + 3 (원래 B는 10이므로 그것의 3배, 최대치 30이 2개 생성됨)

* C는 A의 토론을 듣고 공감해서 2의 경우, 즉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 C = 1 + 2 + 2 (원래 C는 10이므로 그것의 3배, 최대치 30이 2개 생성됨)

10 단계

B와 C는 경청 후에 자신이 적은 종이를 먼저 자신이 한장을 가지고, A에게 나머지 한장을 준다. 그래서 A는 2장을 받게 된다.

$$\begin{array}{l} A = 1 + 3 + 2 \\ B = 1 + 3 \\ C = 1 + 2 \end{array}$$

11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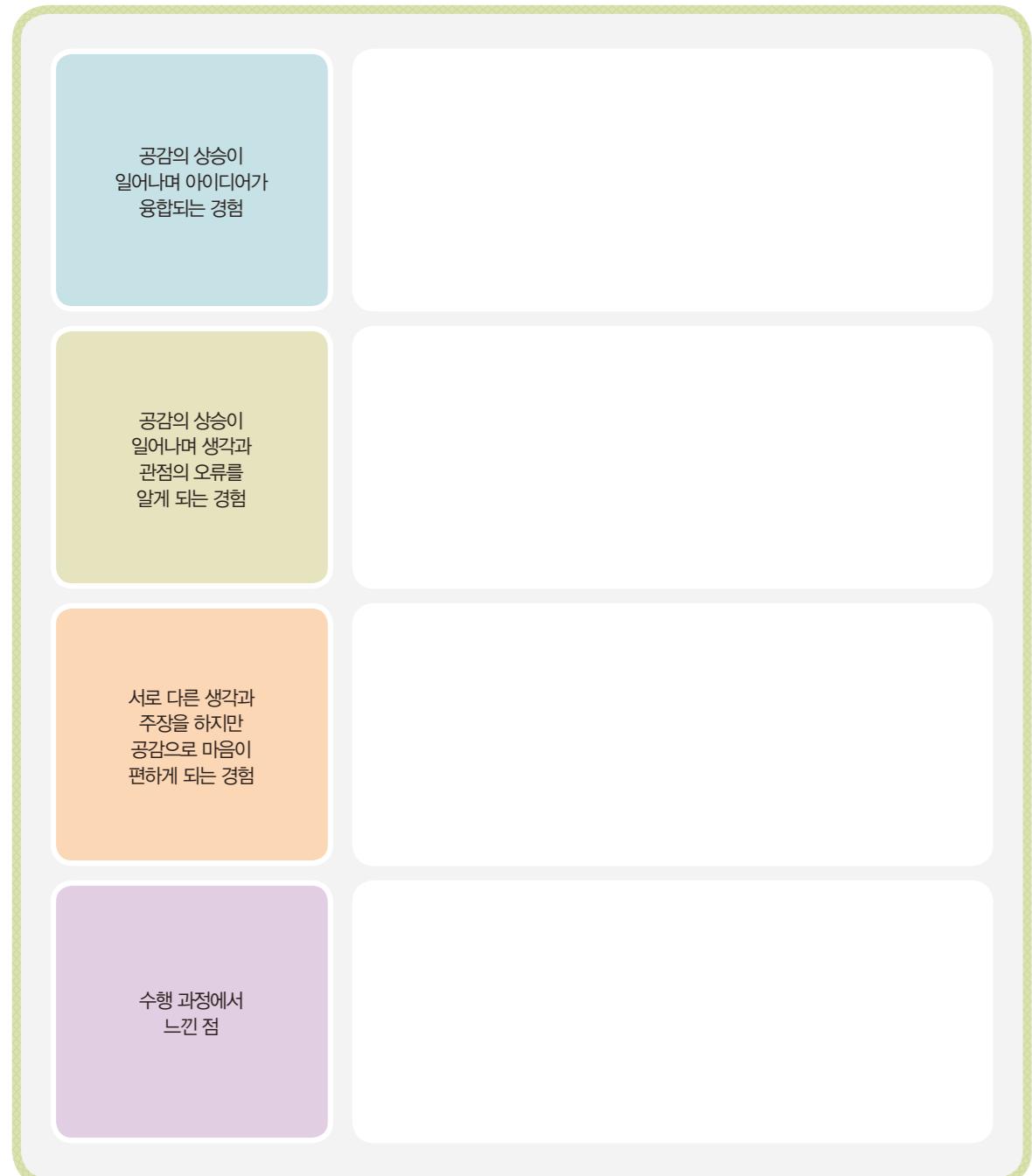
이번에는 B가 토론하고, A와 C가 공감하며 경청한다.

12 단계

경청자 A와 C는 B의 주장에 대해 1차적 공감 단계에서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공감을 하면서 듣는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공감의 행복이 창조되는지 확인한다.

<p>13 단계</p> <p>1차적 공감을 확인한 경청자 A와 C는 2차적인 공감 단계에 들어간다. 2차적인 공감 단계는 감정의 단계를 넘어 지성적으로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단계이다.</p> <p>공감에 의해 창조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토론자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융합하는 것을 시도한다. 긍정적인 반응이 아래 4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A와 C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토론자 B의 아이디어가 융합되는 창조적인 방안이 떠오르며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② 토론을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보다 토론자 B의 의견이 더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③ 토론자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④ 토론자와 의견이 같아서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p>18 단계</p> <p>1차적 공감을 확인한 경청자 A와 B는 2차적인 공감 단계에 들어간다. 2차적인 공감 단계는 감정의 단계를 넘어 지성적으로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단계이다.</p> <p>공감에 의해 창조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토론자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융합하는 것을 시도한다. 긍정적인 반응이 아래 4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A와 B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토론자 C의 아이디어가 융합되는 창조적인 방안이 떠오르며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② 토론을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보다 토론자 C의 의견이 더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③ 토론자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④ 토론자와 의견이 같아서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p>14 단계</p> <p>경청자 A와 C는 경청 후에 자신의 반응이 13단계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수치화한다.</p> <p>13-①번처럼 융합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숫자들을 합친 숫자의 3배의 범위 안에서 공감하는 감정의 크기를 숫자로 정한다.</p> <p>13-②번과 13-③번의 경우는 2배의 범위 안에서 공감하는 감정의 크기를 숫자로 정한다.</p> <p>13-④번의 경우는 1배의 범위 안에서 공감하는 감정의 크기를 숫자로 정한다.</p> <p>그리고 경청자는 그 숫자를 2장의 종이에 적는다.</p> <p>경청자 중 13-①번처럼 융합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경청자는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짧게 말하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이고 짧은 피드백을 한다.</p>	<p>* C는 B의 토론을 듣고 공감해서 13-①의 경우, 즉 융합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p> <p>* C = $1 + 2 + 9 + 9$ (원래 C는 $1+2=3$ 이므로 그것의 3배, 최대치 9가 2개 생성됨)</p> <p>* A는 B의 토론을 듣고 공감하며 2)의 경우, 즉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p> <p>* A = $1 + 3 + 2 + 12 + 12$ (원래 A는 $1+2+3=6$ 이므로 이것의 2배, 최대치 12가 2개 생성됨)</p>	<p>19 단계</p> <p>1차적 공감을 확인한 경청자 A와 B는 2차적인 공감 단계에 들어간다. 2차적인 공감 단계는 감정의 단계를 넘어 지성적으로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단계이다.</p> <p>공감에 의해 창조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토론자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융합하는 것을 시도한다. 긍정적인 반응이 아래 4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A와 B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토론자 C의 아이디어가 융합되는 창조적인 방안이 떠오르며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② 토론을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보다 토론자 C의 의견이 더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③ 토론자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④ 토론자와 의견이 같아서 공감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p>15 단계</p> <p>A와 C는 경청 후에 자신이 적은 종이를 먼저 자신이 한장을 가지고, B에게 나머지 한장을 준다. 그래서 A는 2장을 받게 된다.</p>	<p>A = $1 + 3 + 2 + 12$ B = $1 + 3 + 9 + 12$ C = $1 + 2 + 9$</p>	<p>20 단계</p> <p>A와 C는 경청 후에 자신이 적은 종이를 먼저 자신이 한장을 가지고, B에게 나머지 한장을 준다. 그래서 A는 2장을 받게 된다.</p>	<p>A = $1 + 3 + 2 + 12 + 57$ B = $1 + 3 + 9 + 12 + 50$ C = $1 + 2 + 9 + 57 + 50$</p>
<p>16 단계</p> <p>이번에는 C가 토론하고, A와 B가 공감하며 경청한다.</p>		<p>21 단계</p> <p>A와 C는 경청 후에 자신이 적은 종이를 먼저 자신이 한장을 가지고, B에게 나머지 한장을 준다. 그래서 A는 2장을 받게 된다.</p>	<p>A = 75 (최대치) B = 75 (최대치) C = 119 (최대치)</p>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제로 하여 모둠별로 공감 활동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적어보자.



창조적 기업가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단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가 자신이 가진 가치를 사회와 나누는 가치 창조자(Value Creator)를 나타낸다.

창조적 기업가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할 때, 참다운 자기 발견을 추구하려는 창조적 자화상의 발견이 필요하다. 창조적 자화상을 발견하는 방법은 ‘나는 누굴까? 내 꿈은 뭘까? 내 존재 의미와 삶의 목표는 뭘까?’ 등을 찾아보는 것이다.

‘하트 브랜딩(Heart Branding)’ 이란, 참다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삶의 목표를 지향하는 가운데 내가 가진 인격적 재능과 경험을 살린 나의 일을 찾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트 브랜딩에는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며 발휘되는 리더십과 함께 자신의 심장 속 꿈의 ‘소유권’에 도장 찍는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즉, 기업 활동을 통해 소모되고 고갈되는 것이 아닌, 한 개인의 소명 발견과 실천을 통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하트 브랜딩을 통한 창조적 기업가정신의 발견 프로그램은 문화 예술의 감성적 방법론을 통해 한 개인의 창조적 자화상을 담은 하트 스토리(Heart Story)를 만드는 이야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모둠별로 진행하며 모둠원들과 함께 제시된 방법에 따라 이야기를 형상화하는 그림을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친밀감을 형성하며 나의 이야기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의 이야기를 발견해 가는 상호 작용 방식에 의해 진행된다.

- ‘마음’을 상징하는 하트 도형 안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그려보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나타내는지 이야기해 보자.



출처 | gettyimageskorea

1 단계

모둠 설정 및 준비하기

모둠 설정

친한 친구끼리 4~5명씩 모둠을 구성한다.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준비한다.

2 단계

하트 그리기



- 스케치북의 중앙에 나의 마음을 상징하는 하트 도형을 크게 그린다.
- 내 마음의 보석(=나의 꿈, 열정, 사랑, 소중한 것 등)을 상징하는 내용의 그림을 하트 안에 그려 넣는다. 추상적·구체적인 형태 모두 가능하다.

예 펼쳐진 책과 깃털 펜(소설가의 꿈 상징)

3 단계

하트 스토리 전달하기

의미 이야기 하기

- 내가 나의 하트 속에 그려 넣은 그림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예 책은 내게 있어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는 창조적 매체이며, 깃털 펜은 나만의 독특한 상상력을 적어나가는 도구이다.

어려움 표현하기

- 나의 하트 도형의 양쪽으로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극복해야 할 내적·외적 갈등의 요소를 덧그린 후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함께 나눈다.

예 하트 속 펼쳐진 책 여백에 먹구름을 그려 검게 색칠하여 채움 : 바쁜 일상 때문에 내가 맘껏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사라졌음을 상징함.

어려움 극복 나타내기

- 이번에는 훼손된 나의 가치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림을 덧그려 본 후 그 내용을 조원들과 함께 나눈다.

예 ‘검은 먹구름’에서 다양한 컬러의 빛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림을 덧그림.

4 단계

하트 스토리 공동으로 완성하기

그림 덧그려 주기

- 각자 그린 그림을 내 원편 사람의 방향으로 건네고, 그림을 받은 친구는 건넨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상징적 의미의하트 보석이 더욱 빛나고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나만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더하여 그림을 덧그려 준다.
- 그림을 덧그린 후에는 무엇을 그린 것인지 그 의도를 조원들과 나눈다.

예 먹구름 위에 태양과 무지개를 덧그림 : 곧 먹구름이 걷히고 상상력을 맘껏 펼치는 시간이 올 것을 의미함.

한 번 더 덧그려 주기

- 다시 한 번 시계 방향으로 그림을 돌려 더 필요할 것 같은 요소를 보완하여 그림을 더 풍성하게 덧그려 준다.
- 그림을 보완한 의도를 돌아가며 말하고 그림의 원주인은 친구가 덧그려준 그림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예 깃털펜 위에 반짝거리는 빛을 그려주었다. 친구가 가진 재능이 더욱 빛을 발하기 바람.

하트 스토리 완성

- 자기 그림을 받은 학생은 그림 뒷장에 나의 하트 보석에 더하고 싶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좌우명을 캘리그래피 기법으로 쓰고 간단한 소감을 기록한다.

예 Making a Dream Come True!!

하트 스토리 정리하기

하트 도형 안에 스토리 텔링(Story-telling), 스토리 두잉(Story-doing), 스토리 리빙(Story-living)으로 정리해 보며 나의 내적 동기를 요약한 좌우명,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지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전인적인 성취가 있는 삶의 모습을 설계하는 결과물을 도출시킨다.

자신의 생각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짧게 1~3줄로 요약하여 아래의 빈 여백에 채워 보자.

• 나의 Story-telling 정리

1단계



수행 팁

소그룹 활동을 통해 도출한 '나의 꿈 좌우명'을 나의 스토리 텔링 주제로 삼고, 나의 하트 보석 그림을 다시 한 번 감상하여 발견한 나만의 스토리가 무엇이었는지를 글로 정리해 본다.

• 나의 Story-telling 정리

2단계



수행 팁

– 나의 꿈과 좌우명을 실천하기 위한 현재 나의 행동 지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 나의 하트 속에 담긴 보석과도 같은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어떤 대상과 방법으로 그 가치를 나누고 싶은지 등의 내용을 글로 정리한다.

• 나의 Story-telling 정리

3단계



수행 팁

– 내 보석이 가진 가치를 매일의 삶을 통해 실현해 나갈 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까?
– 어떤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지 또 그것의 긍정적 영향력이 나와 내 이웃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내 미래의 청사진을 글로 정리한다.

찾아보기

1

개방적 공동체	13
공감	27
공감의 상승 작용	28
공공 부문 위탁 사업	72
공공경제	7
공동체	13
공동체의 구성 요소	13
공유경제	92
공정무역	82
공정무역 10원칙	84
국제협동조합연맹	6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72
김만덕	16

2

녹색 에너지 실천 사업	72
--------------	----

3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48
---------------	----

4

렛츠쿱 게임	65
로치데일	6

5

마을기업	66
------	----

6

빌 드레이튼	26
--------	----

7

사업자 협동조합	48
사회 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43

사회적 협동조합 48

사회적경제 6

사회적기업 42

상여 92

성미산마을 12

소비자 협동조합 48

시장경제 7

8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43

9

자원재활용사업 72

자활기업 76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72

조슈아 실버 38

주식회사 51

지역 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44

지역 특산품·자연자원 활용 사업 72

직원 협동조합 48

10

체인지메이커 16

11

판하섬 20

폐쇄적 공동체 13

12

학교협동조합 56

협동조합 46

협동조합 7월칙 52

협동조합기본법 47

혼합형 사회적기업 44

홍동마을 15

- ❖ 이의규 · 조은상 · 류지영 · 유정규(2014), 사회적경제 확산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유정완(2013),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 및 현황,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 조재석 · 윤영림 · 조미경 · 박희선 · 김찬배 · 김은주 · 김미화 · 박종우(2016), 알기 쉬운 사회적경제, 아산시청.
- ❖ 장종익 · 송인창 · 이성수 · 송문강 · 신순예 · 박범용(2015), 프랑스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다, 서울 특별시.
- ❖ 김영철(2011), 사회적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사회연구, 19(2), pp.25–49.
- ❖ 김혜원(2015), 초중등 학교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 방식에 대한 연구, 사회경제평론, 통권 47호, pp.205–236.
- ❖ 노대명(2009), 사회적경제를 강화해야 할 세가지 이유, 창비.
- ❖ 청년 사회적경제 강사모임 「어지간히」(2015), 중 · 고등학생들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교재,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엄한진 · 박준식 · 안동규(2011), 대안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 –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8, pp.169–203.
- ❖ 김대영 · 심상달 · 장원석(2014), 융합적 사회적경제와 SHC: 사회적경제와 주류경제의 융합, 한국 금융연구원.
- ❖ 정진철 · 심명섭 · 이규봉(2014), 사회적경제 현황과 발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비영리연구, 13(2), pp.1–18.
- ❖ 채지희(2013), 한국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자립 성공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성지미 · 황준욱 · 안주엽(2014), 소셜벤처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
- ❖ 장원봉(2007),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5(2), pp.1–34.
- ❖ 성주인 · 엄진영 · 박유진 · 정규형(2014), 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집필 책임

심상달 (재)아름다운커피 이사장 겸 (사)소시얼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 이사장

집필위원

권주형 (광명회계경영고등학교 교사)
박진호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서동관 (남양고등학교 교사)
김진경 (공주대학교 교수)
김대영 (융합경제연구소 대표)
이유미 (이움액츠 대표)

검토위원

양용희 (호서대학교 교수)
최혁진 (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한수정 (아름다운커피 그룹장)
한희성 (아름다운커피 팀장)
고종남 (오산정보고등학교 교사)
윤우현 (국사봉중학교 교사)
정미숙 (창덕여자고등학교 교사)
김현모 (상명고등학교 교사)
홍태숙 (수명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사회적경제 워크북

발행일 2017. 3

발행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편집·제작 경인디앤피 (TEL 02-741-5941)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